

감리교회의 입장에서 본

이단문제

기독교대한감리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목 차

1. 발간사	5
2. 편찬사	7
3. 목회적 입장에서 본 이단문제	11
(고수철 감독)	
4. 정통과 이단에 대한 성서신학적 고찰	23
(왕대일 목사)	
5. 교회사적 입장에서 본 이단문제	51
(김기련 목사)	
6. 한국감리교회의 이단대책에 관한 역사적 고찰	85
(박봉배 목사)	
7. 이단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종교사회적 입장에서-	117
(김영일 목사)	
8. 타교파의 이단대책 사례	139
(유관지 목사)	

| 발 | 간 | 사 |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 신앙을 둘러싼 이단문제 때문에 교회는 늘 긴장과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경우 시대마다 나라마다 이단현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가 ‘유다복음’의 파장이나, ‘다빈치 코드’의 파문을 통해 보듯이 반 기독교메시지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기독교 신앙을 향해 도전해 옵니다. 그것은 과학과 예술을 동반함으로써 현대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최소한 먹는 것에 관한 한 궁색함은 없어졌으나, 영혼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몸의 풍요에 비해 영혼의 갈증을 호소합니다. 뉴 에이지 운동의 다양한 모습이 그것입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신앙의 방식으로 경건생활을 하기보다는 명상, 요가, 기수련, 마음수행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신비주의, 심령술, 마음 에너지, 초자연현상, 채식주의 따위에 마음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와 달리 현대인의 삶에 의식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개인을 조직과 구조 속에서 획일적으로 인식했는데, 이제는 개인의 행동과 생각을 존중합니다. 다원주의 시대에는 개인 소의 현상이 더 확산되기 마련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몸을 중요시하여 건강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무한경쟁 시대가 주는 스트레스에 대한 돌파구를 찾고자 합니다. 특히 자연재해, 환경오염, 문명사고, 잔혹범죄 등 위험한 사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만의 정신적인 안전망을 찾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탄의 책략이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또 어떤 이들은 허무한 풍요에서 싹튼 새로운 영성이라고 옹호합니다. 어쩌면 기계문명에 찌든 현대인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변명할 것입니다. 더 솔직한 대답은 기성 종교가 개인의 갈등, 아픔, 심리적 고통을 수용하지 못한 까닭에 발생한 '깊은 위기에 빠진 문화와 그 위기에 대한 잘못된 응답' 일 것입니다. 이단은 우리 곁에 쉽게 기생할 만한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외적으로 잘못된 이단을 근절하고, 비뚤어진 영성을 바로 진단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또한 내적으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채,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무성함 속에 감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전례 없던 칠년 풍년기간 동안, 그 이후에 찾아올 칠년간의 대기근을 준비했던 요셉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감리교회의 입장에서 본 이단문제'는 이러한 대비책의 하나입니다. 이 책이 이단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편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영적상태를 돌아보고 영적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믿음의 자양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의 최호순 감독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모든 집필자님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독회장 신경하

| 편 | 찬 | 사 |

기독교 역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이단들과의 문제로 많은 고충을 겪으면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 한국기독교 역시 유난히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주장과 종말론 주장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우리 주변에는 허구적인 사상과 종말론 주장자들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대전의 오대양 사건, 팔영산 기도원의 시녀사건, 경북 영양에 있는 일월산 교주의 마각행위, 백백교의 전용해 교주의 간음사건, 용화교의 서백일의 여수와 오백명 사건, 문선명의 통일교 합동결혼식, 박태선의 신앙촌, 이유성의 부활사건, 양도천의 한님주의, 대순진리회의 세계동포주의 등은 한동안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한 사이비종교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아울러 1992년 10월 28일 세상 종말이 임한다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장림의 다미선교회 사건은 우리 기독교계 뿐 아니라 사회에 엄청난 물의를 빚어왔다. 이로 인해 한참 성장하던 한국 교회는 된 서리를 맞은듯 성장의 둔화를 초래케 되었다.

종교문제연구소 김종일 교수에 의하면 한국에 383개 이상의 신흥종파가 있으며, 자칭 교주들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7명이나 있으며, 자칭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무려 29명이나 있다고 했다. 이들 종파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구세주라 속이고 있다. 외적으로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속은 다른 사상과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은 정말 무서운 독버섯이다. 간판은 기독교로 내걸었지만 그 정체를 파고 들어가 보면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벧후 2:1)고 경고했다. 타종교에 비해 기독교에 유독 이단이 무성한 것은 성경적이며 말세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마 24:3-5, 11).

기독교 내부에도 가짜 교회가 많다. 참교회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성경에 깊이 조명해 봐야 한다. 그러나 이단자들도 성경을 들이대며 유혹하기에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가짜일수록 더 요란하게 꾸미고 번쩍이는 것으로 포장하기에 식별하기가 어렵다. 이단들일수록 기성교회보다 더 열성적이고 이론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기성교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단에 속한 사람과는 자주 논쟁할 필요가 없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않으면 멀리해야 한다(딤후 3:10). 이상한 교회는 반드시 담임목사님께 물어야 한다.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는 감리교인이 되기 위하여 이번에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에서는 오랫동안 작업 끝에 이단 대책에 대한 책자를 만들게 되었다. 그동안 감리교회가 이단에 대하여 속수무책이었고, 많은 피해도 입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감리교회가 이단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바른 교회관을 세우고 감리교회를 지켜 가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래서 신학자들에게 성서적, 신학적, 교회사적 관점에서,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현장에서 이단을 연구하게 했고 그 값진 연구 자료들을 모아 한권의 책을 선보이게 했다. 다른 교파들의 이단 사례를 유관지 목사님께서, 이단에 대한 신학적 입장에 대하여 왕대일 박사님이, 감리교 신학의 맥과 교단입장에서 박봉배 박사님이, 교회사적인 입장에서는 김기련 박사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김영일 박사님이, 목회적 입장에서 본 이단문제는 고수철 감독님이 집필해 주셨다. 집필에 동참해주신 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이 한권의 책이 감리교회를 더욱 성서적이며, 정통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자료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살롬

2006. 4. 16. 부활절에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최호순 감독

목회적인 면에서 본 이단문제

고수철 감독

흑석동제일교회 담임목사
미 에모리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1. 이단의 정의

이단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대응이 없을 경우, 교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본 책자는 이단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에서부터 이를 대응하는 방안에 이르기까지 이야기하여, 이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피해를 방지하길 원하는 목사들과 평신도들에게 모두 필요한 책이라 말하고 싶다.

‘이단’(異端)이란 단어는 헬라어 ‘haireses’에서 파생된 것인데 영어로 ‘Heresy’이다. 원래는 ‘선택 받은 자, 뽑힌 자’로서 어떤 특별한 철학적 견해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단’의 한자의 의미는 ‘끝이 다르다’는 뜻으로, ‘처음은 같으나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단이란 말을 정통적인 교회의 교리와 다른 주장이나 교리를 내세우는 개인, 집단을 말할 때 사용하였다. 기독교는 초기부

터 변질된 신앙 노선으로부터 정통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이단들과 싸워왔다.

이단이란 신앙적 의심이나 회의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는 성경을 믿으면서도 기독교 진리의 일부분을 곡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단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의나 교리를 부인한다면, 이것은 이단이다. 그렇다면, “정통적인 기독교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감리회의 정통신학적인 입장과 기독교 신학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에 답을 하려고 한다.

2. 왜 이단이 발생하는가?

1) 성경에 보면 이단이 발생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다(마 24:3-51).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재림에 대하여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경고하셨다. 즉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거짓 선지자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둘째는, 자기가 깨달은 것이 참이라고 잘못 믿고,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 현대 교인들은 이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예수께서는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마 24:23)고 경고하였다.

2) 전통적인 교회의 제도적인 부패와 타락을 이유로 말할 수 있다.

이단을 이끌고 있는 교주들은 기성교회의 제도적인 결함과 부패를 공

격함으로써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자기 자리를 굳히고 있다.

해방 후 국토의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 가운데서 교회는 하나로 단합하여 민족을 위로하고 소망을 제시해 왔었다. 그러나 교회는 분열과 분쟁 속에 휘말리기도 하였다. 이런 전통적인 교회가 뒷면을 공격하면서 여러 사이비 종파들이 생겨났고, 신비적인 능력과 구원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도 나왔다. 1950년대 중반에 일어난 박태선의 전도관 운동, 문선명의 통일교 운동(정명석은 이 운동의 한 분파라고 할 수 있다)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네 입의 말로 네가 엮였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잠언 8:2 개역) 지금도 구원파, JMS(정명석), 성낙교회(김기동), 안상홍증인회, 여호와의 증인, 땅끝 예수전도단, 영생교 등이 일어나 전국을 혼란케 하고 있다.

3. 이단 분별의 기준

1) 이단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부인하고 있다.

정통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믿는다. 이에 반해 이단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단들은 십자가를 저주와 실패의 상징으로 보고 말하기도 한다.

2) 이단은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하는 것을 거부한다.

정통적인 기독교는 모두 사도신경을 신앙의 기준으로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는다.

3) 이단은 성경 전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짙다.

정통기독교회는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며, 간혹 하나님의 특

별계시를 믿는다. 그러나 이단은 신구약성경의 권위보다 그들의 다른 복음(갈 1:7-8, 고후 11:4)에 권위를 부여하며,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계속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신구약성서에서 끝맺음을 나타내고 있다. 더 이상 특별계시의 계속성을 주장한다면, 이단일 수밖에 없다. 즉 성령께서는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바로 깨우쳐 주시고(요 16:8),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만 전해주신다(요 16:13).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계시하길 원하시는 전부이며, 성령께서는 임의대로가 아니라, 이 내용의 조명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다.

4) 이단은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정통교회를 미혹한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큰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믿고 있다. 이단들은 이를 이용하여 교인들은 미혹하고 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마 24: 24)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벧 후 2:1)

5) 이단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거나 신격화한다.

존경과 신격화는 다른 것이다. 이단집단의 지도자는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재림의 예수’, ‘말세 마지막 종’, ‘하나님의 어린양’, ‘선지자’, ‘보혜사 성령’, ‘심판 주 하나님’, ‘새 하나님’, ‘하나님의 부인’, ‘하나님의 둘째 아들’ 등 갖가지 신격화된 명칭으로 부르게 한다.

6) 이단들은 불건전한 신비주의의 체험을 객관화하려고 강조한다.

기독교는 신비주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그 믿음의 선행조건은 될 수 없다. 흔히 이단자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불건전한 신비체험을 마치 진리인양 주장하고 있다. 자기만이 ‘하나님과 직통 한다’, ‘직접 계시를 받았다’, ‘예수를 직접 만났다’, ‘환상을 보았다’ 등의 주관적인 신비체험을 객관화시키어 교인들을 미혹하려고 한다.

7) 이단은 성경해석에 있어서 오류를 범한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경의 가장 정확한 해석은 성경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원리적인 해석(Principle Interpretation)을 주장했지만, 이단들은 대부분이 은유적인 해석(Allegorical Interpretation)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이 지나쳐서 성경해석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또 자신들만이 성경을 100% 통달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

4. 이단의 공통점

1) 절박한 위기의식을 조작한다.

이단들은 세계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박한 위기의식에 빠지도록 유혹한다. 무시무시한 세상의 종말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단들의 공동체에 가담해야 되는 것이라고 세뇌시킨다.

2) 교주 중심적인 논리를 전개하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유혹한다.

이단들은 그리스도 중심적이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논리를 전개한다 (로 3:9-20). 이단의 교주들은 모두 자기에게 충성하고 복종하기를 요구한다.

3) 교주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을 신격화한다.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서 나선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객관적인 인증도 없이, 자기 주관적인 계시나 환상 등 신비체험을 간증하면서 교인들의 믿음을 빼앗아가도록 설득한다.

4) 이단들은 자기들의 공동체에 가입하는 사람만이 구원 받는다고 설득한다.

마지막 때 환란에서 자기들의 공동체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극단적인 선민의식(예: 여호와와 의 종인)을 가지고 있다. 환상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이다.

5) 이단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가시적인 지상천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힘으로 지상천국이나 환난 날에 안전한 피난처를 건설하자고 외치면서 집단적인 생활을 강조한다.

6) 그들은 강한 폐쇄적인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자기들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외부와 단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7) 대부분의 이단들은 윤리성이 결여되었다.

이들은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비윤리와 부도덕을 자기들의 논리로 합리화시키고 있다.

5. 이 책을 만들기까지의 과정

본인이 김진호 감독회장과 함께 10명의 감독이 된 후(2002. 11. 1-2004. 10. 31). 교리와 장정 제 7장 제 6절 제 145조에 보면,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언급이 있다. 2003년도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신학정책과 이단대책 위원회의 발족의 통과를 보았다. 이때, 소화춘 감독은 신학정책위원장이 되고, 본인(고수철)은 이단대책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일 년 동안 아무 말이 없었기에 본인은 감독 회에서 이단대책의 중요성을 주장하여 이단대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감독들의 일치된 견해 속에 2004년 3월 11일에 본부 회의실에서 각 연회에서 감독들과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들과 신학대학교 교수의 참여로 발족하였다. 이때, 이단대책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수철 감독(위원장), 배정길 감독, 오세창 감독, 김정태 장로(서기), 오계수 장로, 유관지 목사, 김광명 장로, 최수현 목사, 김영일 교수, 왕대일 교수, 박은규 교수, 원종국 목사 등이었다.

이때, 5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서 검토한 후에 이단대책의 기준점을 제정하고, 책을 만들어 감리회 교역자와 평신도들이 읽어 이단의 피해를 극소화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구하기로 결의를 보았다.

- 1) 다른 교파들의 이단 사례를 연구하여 발표하기로 결의하고, 유관지

목사가 맡았다.

- 2) 이단에 대한 신학적 입장에 대하여 연구하여 발표하기를 결의하고, 왕대일 교수가 맡았다.
- 3) 감리교 신학의 맥과 교단입장에서 이단을 정의하기로 하고, 박봉배 교수가 맡았다.
- 4) 교회사적인 입장에서의 이단의 연구는 박은규 교수가 맡았다.

6.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김영일 교수가 맡았다.

그리고 다음 모임에는 각자가 연구하여 20분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결의를 보았다. 이때, 이단에 대한 일괄성과 지속적인 전문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설기구로 이단대책 위원회를 두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제 2차 모임은 5월 17일에 본부회의실에서 유관지 목사가 이단에 대한 다른 교파의 사례를 연구하여 발표를 하였고, 교회사적인 입장에서는 박은규 교수가 발표를 하였다. 이때, 이단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중요함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그리고 각 교파별로 이단에 대한 책자가 발간되었음을 발견하고, 감리회에서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로 이번 기회에 책을 만들자고 다시 한번 결의하였다.

제 3차 모임은 6월 3일에 본부회의실에서 김영일 교수, 박봉배 교수가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하였다. 이때도 상설기구로 이단대책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제 4차 모임은 6월 19일 왕대일 교수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때 이단과 사교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에 감리교 신학과 신앙에 근거하여 지침서를 만들자고 결의를 하였고, 이

단대책 연구를 위한 상설기관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때 7월 15일에 열리는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이단에 대한 책을 만들기 위한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건의해서 통과시키는 안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제 5차 모임은 10월 25일 서울 남연회 감독실에서 모였다. 이때 집필위원(유관지, 김영일, 왕대일, 박은규, 박봉배)과 편집위원(고수철, 원종국, 김정태, 오계수)으로 나누어서 책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집필위원장은 유관지 목사요, 편집위원장은 고수철 감독이 맡기로 하였다. 그리고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논의하였다.

-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한다.
- 이단의 정의와 개념 설정은 일괄성과 공통점인 합의를 본다.
- 제작계획서는 유관지 목사가 담당하고, 원고 마감은 12월중으로 한다.
- 원고는 글자크기는 11포인트로 하고, 15-20페이지로 한다.

새로 선출된 최호순 감독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이후에 두세 번 집필진의 모임을 가지고 책이 나오게 되었다. 이 책은 감리교의 이단대책에 기준점을 마련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앞으로 더욱 연구하여 적그리스도로부터 감리회의 교우들과 교회를 지키어 나가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에 수고해 주신 집필진과 편집위원들에게 지면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통과 이단에 대한 성서 신학적 고찰

왕 대 일 목사

감신대 교수
미 클레어몬트대학원 철학박사

1. 이단과 교회

이단(heresy)은 바른 교리, 바른 행동, 바른 경험과 배치되는 신앙이론이나 종교의식 등을 따라 전통적인 교회에서 분열된 종파나 분파이다. 신앙이론에서 이단은 바른 가르침을 벗어난 주장을 통해 교회를 분열시키고, 종교생활의 실제(예배, 생활, 조직)에서 이단은 사이비의식(cult)이나 무속, 주술(occult) 등과 연관된 종교적 행위를 퍼뜨림으로 반사회적 경계의 대상이 된다.¹⁾ 이단을 지칭하는 용어는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다. 사이비,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파, 사이비 이단, 유사종교, 신흥종교, 사교(邪敎)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용어들 사이에는 의미상 미세한

1) R. M. Bowman, *Orthodoxy and Heresy: A Bible Guide to Doctrinal Discernment* (Grand Rapids: Baker, 1992), 113-116; R. Enroth, *A Guide to Cults and New Religions*, 오희천 역, 〈신흥종교와 이단들〉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8-9; H. Stamm, *Sect*, 송순섭 역, 〈사이비 종교〉 (서울: 홍성사, 1997), 32-37.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용어들은 모두 이단을 건전하지 못한 종교집단, 겉은 기독교이나 속은 기독교가 아닌 종교단체, 기성 교회를 비난하면서 떨어져 나간 종파로서 그 창시자를 숭배하고 받드는 단체, 그릇된 교리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 종교집단 등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이단의 반대는 정통(orthodoxy)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단의 반대말은 교회, 곧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이다.²⁾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뿌리를 내리면서 이단이란 용어가 부각되었다. “에클레시아”(교회)와 이단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다. 교회는 이단을 수용할 수 없고 이단은 교회에 소속될 수 없다. 교회는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이단은 “(모임에서) 분리되어 나간 당파”이다. 이단은 모든 교회가 인정하고 따르는 교리적 실천적 경험적 규범에서 의도적으로 떨어져 나가 생긴 종교집단을 가리킨다. 이단은 한마디로 주류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떨어져 나가 형성된 종교집단(sect)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단은 일종의 소종파형(sect)이다. 영어 “sect”의 뿌리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라틴어의 “분리하다”(secare)에서 파생된 뜻이고, 다른 하나는 “따르다”(sequi)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의미이다.³⁾

전자에 치중할 경우 이단은 “분리되어 나온 당”(secta)을 지칭한다. 곧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뭉친 분파나 종파, 특수한 종교 집단을 가리킨다. 후자의 의미를 살릴 경우 이단은 교회에서 분파된 집단으로, 그 창시자

2) H. Schlier, “αἵρεσις” G. Kittel(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6), 183.

3)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154-155; H. Stamm, 〈사이비 종교〉, 32-37; A. W. Gomes, *Unmasking the Cults*, 장미숙 역, 〈사교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7), 29.

(교주)를 예언자나 메시아, 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나 하나님의 소식을 받은 사람으로 숭상하면서 철저히 추종하는 종파의 모습을 띤다. 이 종교집단은 종종 광신적, 신비주의적인 종교의식(비성서적인 예언, 안찰, 투시, 영서, 입신 등)이나 은밀한 주술(귀신을 쫓는 능력, 천사를 부름, 영매, 최면술, 심령술 등) 등을 시행하는 당파를 결성하게 되기에 교리적 이단은 곧 반사회적 종교집단인 “사이비 종파적 이단”(cultic heresy)으로 대두되게 된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단을, 정통 교리를 따르지 않는 이단과 정통 교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사이비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이비가 보통 자기를 정통인 것처럼 위장하는 유사종교의 형태를 띠게 되기에 – 이단이란 한자어(異端)가 “꼬리가 다르다”는 뜻인 것은 이 점에서 흥미롭다⁴⁾ – 이단과 사이비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힘들다. 또 “이단”이란 용어를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신봉하는 종교집단에 국한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단과 배교(背敎, apostasy)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나아가 이단을 제도적으로 다수가 주장하고 따르는 표준에서 벗어난 소수 무리가 결성한 단체로 보는 전통적 견해는 기독교의 초기 단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⁵⁾ 그래서 교리적 “heresy”를 현대 교회와 사회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사이비 종파(유사종교)와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이단을 “다름”의 차원에서 보아야지 “그름”의 차원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⁶⁾

4) 이규학, 〈그들은 이래서 이단이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12.

5) W. Bauer, *Orthodoxy and Heresy in Earliest Christianity* (Philadelphia: Fortress, 1971), xxi-xxv.

6) 정진홍, “정통과 이단의 논의- 그 문화적 위상의 서술을 위하여,” 〈기독교사상〉 (1989년 2월호), 14-26.

문제는 이단을 어떻게 규정하든, 이단이 교회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에토스(ethos)를 파괴시킨다는 데 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는 모두 교회의 정체성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단체라는 성격을 공통적으로 지닌다. 그런 점에서 이단과 사이비 종파는 서로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는 서로 구별되는 단체가 아니라 “사이비 종파적 이단”이라고 불려져야 할 만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유사 종교집단이다. 사이비 종파적 이단은 성서적으로나 교리적으로 기독교와 교회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폐해를 불러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동을 일삼기에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경계의 대상이 된다. 이단을 사이비 종파의 동의어 선상에서 간주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2. 이단이란 용어, 그 언어적 의미

이단을 지칭하는 영어 “heresy”는 헬라어 “하이레시스”(αἵρεσις)에서 왔다. 고전 헬라어에서 “하이레시스”는 본래 정통에 반대되는 이단을 지칭하던 용어가 아니었다. 고전 헬라어에서 “하이레시스”는 “(어떤 도시를 차지하는) 점령(seizure),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정하는) 취사선택(choice, option),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쏟는) 결의나 계획(resolve, enterprise) 등”을 뜻하던 말이었다.⁷⁾ 여기에서부터 헬라어 “하이레시스”는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특정 학문이나 교훈을 주창하는 학파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특정한 학교(하이레시스)에서 가르치는 특정 가르침(하이레시스)을 모두 동일한 “하이레시스”로 불렀던 것이다. 이런

7) Schlier, “αἵρεσις,” 180-181.

맥락에서 “하이레스시스”의 의미 속에는 특정 학파에 소속된 자들끼리 나누는 친교와 교제를 포함하게 된다. 헬라 문화권에서는 특정 학파를 추종하는 사람들끼리의 집회가 활발하였던 까닭이다. 자연, 특정 학파마다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적이자 논쟁적인 주장이나 이념 등을 체계화하면서 그 학파를 이끄는 사람들에게 학파의 창시자라는 권위를 부여하였다. 그러기에 “하이레스시스”는 특정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나 그 밖의 사람들을 자신들과 구별하는 명칭이 되었다.

주전 3-1 세기에 이루어진 헬라어역 구약성서(셈투아진트, LXX)나 주후 1 세기 필로(Philo)나 요세푸스(Josephus)의 글은 당시 헬라 문화권이나 유대주의 안에 여러 형태의 “학파”(하이레스시스)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헬라어역 구약성서에서 “하이레스시스”는 “자발적인 선택”(free choice)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창 49:5; 레 22:18, 21; 느 12:40; 마카베오상 8:30). 필로는 헬라어 “하이레스시스”를 가지고 스토아 철학파, 피타고라스 철학파 같은 특정 가르침을 추종하는 철학파(philosophical school)를 지칭하였다.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헬라 철학파에 견주어 유대 종교의 세 종파, 곧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를 “하이레스시스”로 불렀다.⁹⁾

이처럼 “하이레스시스”를 학파로 이해하던 자취는 신약성서 사도행전에도 남아있다(행 5:17; 24:5, 14; 26:5; 28:22).

헬라어 “하이레스시스”에 상응하는 랍비 히브리어(Rabbinic Hebrew)는 “민”(מִן) 복수형태로는 “미남” מִיָּנָם)이다.¹⁰⁾ 랍비 히브리어 “민”은 유대주

8) Schlier, “*αἵρεσις*,” 181.

9) M. Black, *The Scrolls and Christian Origins: Studies in the Jewish Background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Charles Scribners's Sons, 1983), 5.

10) Schlier, “*αἵρεσις*,” 181-182; E. Dinkler, “Heresy,” G. A. Buttrick(ed.),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2 (Nashville: Abingdon, 1962), 583. M. Jastrow,

의의 소종파(sect, 헬라어 “하이레스시스”)만이 아니라 그 소종파에 소속된 사람들(헬라어의 “하이레티코스”[αἱρετικός])을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이 처음에는 요세푸스가 그랬듯이 유대주의 내부의 파당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지만, 주후 1 세기 말- 2세기 초에 가서는 랍비들의 정통 흐름에서 떨어져 나간 특정 분파(“미남”)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는 점이다. 즉, 정통 랍비들과 맞서는 유대교 분파를 지칭하는 용어로 랍비 히브리어 “민”(“미남”)이 사용되었다. 이 때부터 랍비 히브리어 “민”(“미남”)은 정통(orthodox)에서 분리되어 나간 이교(異敎 heterodox)를 가리키게 되었다. 특정 집단을 가리켜 “이단적”(heretical)이라고 낙인찍는 용어로 정착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주후 2 세기 말에 가서 랍비 히브리어 “민”(“미남”)은 유대주의의 소종파를 의미하기보다는 아예 다른 신앙을 신봉하고 따르는 자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굳어지게 된다.

헬라어 “하이레스시스”가 신약성서에서 종교적이거나 정치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대략 9회 정도이다(행 5:17; 15:5; 24:5, 24; 26:5; 28:22; 고전 11:19; 갈 5:20; 벧후 2:1; RSV의 경우 세 곳에서 헬라어 “하이레스시스”를 “sect”로 번역하고 있는데 [행 24:5, 24; 28:22], 우리말 개역은 이를 “이단” [행 24:5, 24]과 “파” [행 28:22]로 옮기고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약성서에서도 헬라어 “하이레스시스”가 처음부터 정통 교리에 어긋난 이단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앞에서 살펴본 듯이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하이레스시스”는 본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 헬레니즘 풍토에서 이 말은 어떤 교리나 교리적 권위

Dictionary of the Talmud, voll. 2 (New York: Traditional Press, 1903), 775-776. “민/미남” 외에도 헬라어 “하이레스시스”에 상응하는 랍비 히브리어로 “게다바”(גְּדָבָה)나 “막 할로케트”(מַחֲלֹקֶת)를 꼽기도 한다. 전자는 “민/미남”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지고, 후자는 헬라어 “스키스마”(σχίσμα, 분파)의 대응어이다.

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뜻하던 용어이었다. 신약성서의 “하이레스시스”도 헬라적, 유대 랍비적인 용례를 따랐던 것이다. 사도 바울을 일컬어 “나사렛 이단의 괴수”(프로토스타테스 테스 톤 나조라이온 하이레세오스, *πρωτοστάτης της των Ναζωραίων αἵρέσεως*, 행 24:5)라고 불렀던 예가 그 단적인 경우다(비교, 행 5:17; 15:5; 26:5). 유대인들의 눈에는 바울이 유대주의의 바리새파(행 26:5)로부터 “나사렛파”(행 24:14; 28:22)로 전환한 자로 비쳤던 것이다. 이것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기독교를 유대교 소종파 가운데 하나(나사렛 당)로 보았다는 뜻이 된다. 이같은 사실은 모두 헬라어 “하이레스시스”가 처음에는 가치중립적인 어휘로 사용되었다는 흔적을 드러낸다.

헬라어 “하이레스시스”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니는 말로 확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초대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기독교 신앙공동체가 수적, 양적으로 증가하면서부터이다. 교회의 처음 자취를 추적해보면 기독교 신앙공동체 내부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여러 사회적 요인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처음 교회가 확장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유대주의자들의 위협을 받았는가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의 성육신을 부정하면서 율법을 폐기처분하였던 영지주의자들이나 금욕주의자들의 도전을 받았었다(행 9:15; 15:1; 고전 9:1-2; 갈 2:1-14; 골 2:1-23). 이 같은 도전은 초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교회의,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었다. 헬라어 “하이레스시스”가 교회(“에클레시아”)의 반대말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이 때부터이다. 교회 안에 여러 분파가 등장하면서부터 교회에서 탈퇴한 분파를 의미하는 말로 헬라어 “하이레스시스”가 활용되었던 것이다. 물론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헬라어 “하이레스시스”를 가지고 여전히 이단과 분파라는 뜻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을 느끼게 된다. 기독교 회중 안에 존재하는 여러 다

양한 분파 중 하나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이단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였다(갈 5:20; 고후 11:18-19).

다음에 지시하려는 문제에서는 내가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이로움을 주지 못하고 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σχίσμα*)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가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밝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당파(*αἵρεσις*)가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고전 11:17-19).

위에 언급한 고린도전서 11:17-19는 성만찬의 오용에 대한 바울의 경고를 담고 있는 본문이다. 이 구절의 해석은 단순하지 않다. 예컨대 바울이 사용하는 “하이레스스”란 말의 뜻을 종말론적인 의미로 규정하면서 그것을 사사로운 교리적 논쟁을 거쳐 공동체로부터 탈퇴한 그룹(“스키스마타” *σχίσματα*)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지나갈 것은 고린도전서 11:17-19의 경고 속에 철학파를 일컫던 헬라어 “하이레스스”가 교리적이거나 제도적인 이유로 갈라진 분파를 지칭하는 헬라어 “스키스마”(*σχίσμα*), “스키스마타”와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하이레스스”의 의미가 바른 믿음, 바른 실천, 바른 경험에서 갈라져 나간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육체의 행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αἵρεσις*)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연회와,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갈 5:19-21).

이제부터 “하이레스스”는 “논쟁이나 사상적 갈등을 거쳐 교회로부터 떨어져나간 당파, 파당, 분파(sect, faction)”가 된다. 교회에서 벗어난 이런 분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초대교회가 사도 시대 이후의 단계에 접어들면서부터 이단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집단으로 규정된다.

3.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구약성서의 증언

흔히 이단의 정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 누구인지를 살필 때 그 바탕을 신약성서 시대를 전후한 때에서 주로 살핀다. 그러나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구약성서에 이단이 거론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또 이단이란 용어가 구약성서 히브리어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구약성서 시대의 이스라엘이 잘못된 신앙을 가르쳤던 자들 때문에 시련을 겪지 않은 것은 아니다. 비록 주전 2세기-주후 1세기 시대처럼 유대주의라는 가치를 추구하던 자들이 여러 모습의 분파로 나누어지는 사회상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던 신앙적 종교적 지도자들끼리 유일신 하나님 신앙을 놓고 서로 대립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란을 안겨주었던 사례는 얼마든지 구약성서에서 발견된다.

역사적으로 말할 때 주전 4세기-주후 1세기는 유대주의가 형성되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문화사적으로 그리스-로마(Greco-Roman) 시대에 해당된다. 이 시대에 형성되던 유대주의의 초기 형태는 하나가 아니

었다. 이 시절 유대주의는 가르침에서, 실천에서, 경험에서 참으로 다양하였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여러 형태의 유대주의 분파들을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였다. 요세푸스가 유대 종파들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으로 부르면서도 어느 특정 분파를 향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은 것도 그리스-로마 시대 초기 유대주의가 다양한 모습으로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기억할 것은 이들 유대주의 분파들이 저마다 각각 자기들을 “성서적 이스라엘”의 참 후계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만큼 형성기의 유대주의(Formative Judaism)는 그 형식과 내용에서 여러 갈래이었다. 그러던 유대주의가 랍비들 사이에서 종교적 표현과 교리적 갈등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게 되면서(주후 1세기 말-2세기 초) 주후 2세기 말에 가서는 기독교나 영지주의 같은 “다른 신앙을 좇는 자들”을 유대 전통의 흐름에서 벗어난 집단으로 배척하게 되었다. 교회의 역사에서 살필 수 있는 정통과 이단의 구별은 이런 유대주의 형성기의 파장이 기독교 신앙공동체로 옮겨간 결과이다.

그렇지만 이단, 곧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고가 주후 1-2세기의 유대주의나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단의 뿌리는 옛 이스라엘이 경계하였던 거짓 예언자로부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구약성서에 정통과 이단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단에 대한 뿌리를 구약성서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려 하는가? 그것은 구약성서가 증언하는 이스라엘 신앙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에 대한 구별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웨 하나님은 아닌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거나, 꿈과 환상과 이적에 근거하여 그릇되게 교훈하는 예언자들을 이스라엘 신앙은 야웨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히 경고하였던 것이다(신 13:1-5; 18:20-22; 비교, 고전 4:6; 11:2, 23; 15:1-3; 었

3:1-7; 뵤후 2:1-22; 3:16; 계 1:3; 22:18-19).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거짓 예언자는 단순히 야웨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거나 주술을 시행하는 자들이 아니다. 야웨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으로 예언하거나, 야웨 하나님 신앙과 바알 신앙을 하나로 뒤섞어 놓은 혼합주의자들은 너무나 분명히 “다른 종교”에 속한 자들이기에 차라리 경계의 대상으로 삼기가 수월하였다. 진정 구약성서의 증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잘못된 해석을 선포하였던 자들이다.¹¹⁾ 이스라엘 신앙은 거짓 신인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으로 예언하면서 백성을 미혹케 하는 자들보다도 야웨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면서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각별히 주의해야 할 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거짓 예언자라고 해서 별도의 칭호가 주어졌던 것은 아니다. “거짓”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형용사가 “선지자”란 명사 앞에 붙어서 특별한 호칭을 꾸민 것도 아니다. 그들도 역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을 때에는 그냥 “예언자,” “선지자”(히브리어로 “나비”[נָבִי])라고만 불렸다. 구약성서의 증언에 따르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사이에는 호칭상 아무런 구별이 없다. 그들은 모두 히브리어의 “나비”라는 호칭으로 등장하였다. 다만, 예언자로 나섰던 자들의 예언이 참되지 못한 예언으로 그치고 말았을 때 후대의 역사는 그들을 가리켜 거짓 예언자라고 부르게 되었을 뿐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가령 유다에서 베델로 예언하러 온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으로 속인 베델의 늙은 예언자(왕상 13:11-32),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더불어 길르앗라못을 치는 전쟁을 벌이려 할 때 그 전쟁의

11) 왕대일, <구약성서 이해 열마당> (서울: 도서출판 새길, 2003), 189-232; <신앙공동체를 위한 구약성서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3), 142-148.

결과를 바로 알고자 했던 미가야에 맞서 그릇되게 예언했던 시드기야(왕상 22: 5-28)나 유다왕국이 패망하기 직전 바빌론 왕의 명에를 메라는 예레미야의 상징행동을 가로막으면서 하나님의 해방을 예언하였던 하나냐렘 28:1-17)가 그런 경우에 속한다. 또 아모스가 전쟁과 패망을 예언할 때 왕의 성소에서 일하던 예언자 아마사가 아모스를 향해 도리어 국론을 분열시키는 자라고 책망하였던 것(암 7:10-17)도 같은 사례에 든다. 왜 이런 다툼이 벌어졌을까? 왜 이스라엘의 신앙은 시드기야나, 하나냐나 아마샤 등을 거짓 예언자의 부류로 단죄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다. 신명기의 증언은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그 때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마음 속으로, 그것이 주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니, 너희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신 18:17-22).

“예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역사가 혼란스러울 때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던 시드기야와 하나야와 아마사의 가르침이 거짓되었다고 판명되었다는 것이다. 미가야의 말대로 아합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아모스의 말대로 사마리아가 패망했으며, 예레미야의 말대로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해석을 놓고 예언자들의 말씀이 바른 해석(미가야, 예레미야)과 바르지 못한 해석(시드기야, 하나야)으로 갈라졌었다는 것이다. 시드기야와 하나야와 아마사가 거짓 예언자로 낙인찍혔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언약백성의 참된 도리는 무시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 외쳐대다가 바르지 못한 말씀(해석)을 외쳐대는 결과를 맞았기 때문이다.¹²⁾ 시드기야와 하나야와 아마사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통적 신앙고백을 잘못 해석하였다(비교, 신 6:21-25; 26:5-20; 수 24: 2-13)! 구약성서에서 거짓 예언자들의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役事)에 대한 묵상에서 해석학적으로 바르지 못하게 판단했던 사례들과 관련되어 있다.

구약성서가 증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폐해는 고스란히 신약성서가 경고하는 이단의 뿌리가 된다. 이스라엘 신앙이 고발하는 거짓 예언자들은 모두 역사가 혼란스러울 때 등장하였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했을 때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했다. 나라가 전쟁의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사회가 사회 경제적으로 갈등과 긴장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거짓 예언자들의 전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잘못된 화평과 평강과 복을 뽐냄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쳐댔지만,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 속에 빠뜨렸지만, 참 예언자는 고통과 고난과 시련 중에 변화되는 이스라엘을 선포하였다. 구약성서가 고발하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교

12) J. Sanders, "Hermeneutics in True and False Prophecy," G. W. Coats and B. O. Long(eds.), *Canon and Authority* (Philadelphia: Fortress, 1977), 21-41.

훈은 이단이 언제, 왜,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전하는 신약성서의 충고를 듣는 일에 중요한 배경이 된다.

4. 복음과 “다른 복음”, 신약성서의 증언

이단과 정통의 구별은 신약성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주후 1-2세기 유대주의가 내부적으로 겪었던 논쟁과 갈등은 초대교회의 첫 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단과 정통에 관한 유대주의 내부의 문제가 초대교회 내부의 문제로 옮겨갔던 것이다. 영지주의는 이런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공동체 내부로 흘러들어 가 이단적 기독교 사상을 양산하는 모판이 된다. 비록 영지주의에 관한 문서들이 대부분 신약성서 본문들보다 후기에 속하는 자료들이라고 해도, 영지주의나 기독교가 모두 주후 1세기 동일한 환경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¹³⁾ 물론 영지주의의 영향에 맞서 바른 믿음과 신앙의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교회의 제도적 대응은 주후 2세기 이래 교회가 성직 제도를 갖추는 길에 들어서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사도권이 교회의 감독권으로 대체되면서부터 정통과 이단에 대한 구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소리가 된다.¹⁴⁾

사실, 신약성서에는 정통(orthodoxy)이란 말이 사용되지 않는다. 이단과 정통이란 말 대신, 예컨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하지 않은

13) P. Perkins, *Gnosticism and the New Testament*, 유태엽 옮김, 〈영지주의와 신약성서〉 (서울: 감신대성서학연구소, 2004), 51.

14) 근광현, 〈기독교 이단 길라잡이〉 (서울: 도서출판 누가, 2003), 45-49. J.G. Gager, *Kingdom and Community: The Social World of Early Christianity*, 김쾌상 역, 〈초기 기독교 형성과정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133-153.

“다른 복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다른 복음”에 빠지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경계가 바울 서신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고후 11:4; 갈 1:6-8). 정통이란 단어가 신약 성서에서 직접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해서 바른 신앙의 규범에 관한 신약성서의 지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주는 그리스도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마 16:16)라는 신앙고백이 주후 3-4세기에 형성된 신조들의 원형이 된다고 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대두된다.¹⁵⁾ 정통이란 헬라어가 “바르다”(right)와 “존경”(honor)이란 의미를 가진 두 개의 헬라어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도 바른 믿음, 바른 실천, 바른 경험에 대한 신앙공동체의 의지가 주후 2세기 이전 신약성서 시대에 이미 존재하였음을 깨닫게 한다.

두말할 나위 없이 신약성서가 전하는 초대교회의 분파적 갈등의 이면에는 초기 기독교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이를 테면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람어를 사용하던 팔레스틴계 유대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의 헬레니즘계 그리스도인,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이교 사상의 배경을 지닌 헬레니즘계 이방인 그리스도인 등이 모두 모여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자들과 헬라 문화를 수용하던 이교적 배경을 지닌 자들이 서로 공존하지를 못했다는 데 있다. 유대적 풍습과 헬라적 관습을 따르던 삶의 양식과 방식 등에서 그들이 서로의 차이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벌어졌었던 갈등은 그런 사회적 긴장이 겹으로 분출된 경우다.

예를 들어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 외에도 할례를 받아야

15) V. G. Neufeld, *The Earliest Christian Confession* (Leiden: Brill, 1963), 6-10.

한다고 주장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 등에서 일으켰던 소동(행 15:1-29; 갈 2:11-14)은 초대 기독교가 직면하였던 율법주의적 구원관의 영향을 보여준다.¹⁶⁾ 이런 소동은 당시 초대교회가 유대 율법적인 의미에서 정통으로 남는 길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정통이 되는 길을 쫓아가느냐는 두 길 사이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심각한 정황을 시사한다. 당시 율법에 열심이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서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게 된다. 그러나 주후 49년에 개최된 예루살렘 회의는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외에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결정을 전하고자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인 교회에 파송함으로써 율법적 구원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행 15:19-20, 21-29). 신약성서는, 특히 바울서신은 이런 논쟁의 결과를 담고 있는 문헌이라고 볼 수 있다.¹⁷⁾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 주신 그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

16) H. D. Betz, Galatians, Hermeneia, 103-112.

17) H. D. Betz, “Heresy and Orthodoxy in the NT,” D. N. Freedman(ed.), *Anchor Bible Dictionary*, vol. 3 (New York: Doubleday, 1992), 144-147.

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갈 1:6-9).

바울에 따르면, “하이레스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바울의 사도적 지위를 의심케 하거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왜곡해서 가르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켰던 무리들이다. 갈라디아서의 경우 이들은 주로 유대화주의자들이다. 이 다른 복음의 위협이 바로 바울이 세운 교회가 직면하였던 이단의 정체이다. 그리스도인의 바탕을 훼손하는 교리나 삶을 전파하는 당파를 가리켜 “하이레스스,” 곧 이단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고전 11:19). 이단은 거짓되거나 바르지 않은 가르침을 내세우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분리주의자들이다(고전 11:29; 갈 5:20; 비교, 뱀후 2:1).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분파주의자들이 초대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었을까? 우리는 앞에서 신약성서 시대의 교회에 이단 분파가 파생되게 된 요인으로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출신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 문화적 현상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초대교회가 겪어야 했던 분쟁과 갈등에는 이런 요인 말고도 신앙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끼리 벌여야 했던 신학적인 논쟁, 신앙공동체 안에서 겪는 빈부격차 같은 경제적인 갈등, 교회의 교권적인 다툼이나 도덕적인 타락 같은 원인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여러 요인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였던 가장 큰 요인을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 영지주의(Gnosticism)이다.¹⁸⁾ 바울이 맞서야 했던 자들이 주로 유대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것이다.

18) P. Perkins, *Gnosticism and the New Testament*, 유태엽 옮김, 〈영지주의와 신약성서〉, 51-66; 서창원, “정통과 이단의 문제: 노스티시즘과의 논쟁의 신학적 의미,” 〈신학과 세계〉 30 (1995년 봄), 115-138; 근광현, 〈기독교 이단 길라잡이〉, 97-172.

영지주의를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영지주의가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그 가르침이 무엇이며, 신약성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영지주의의 영향에 대한 신약성서의 대응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하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는 영지주의가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간주하는 헬라 철학의 토양 속에서 인간 예수와 육체가 없는 신적인 그리스도를 엄격히 구분하는 가현설(Docetism)적인 기독교론을 전개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영적인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다. 예컨대 십자가에서 죽은 인물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혼적인 몸을 지닌 예수였다고 주장하거나,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영혼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그는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였다. 이같은 생각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오해로도 나타났다. 하나님은 초월자이며 감각적인 현실세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우주 밖에 있는 존재로 비쳐졌다. 하나님은 악한 물질세계를 창조하지 않았다고 보았던 것이다. 하나님을 조물주와는 구별하여 생각하고 이원론적인 세계관에서 물질세계를 악한 것으로 간주하였던 까닭에 물질세계를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그 결과 영지주의자들은 도덕폐기론적인 삶을 살든가 아니면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쫓아가게 되었다.

신약성서 내에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은 주로 기독교론적 오해와 관련되어 나타난다. 영지주의자들은 한결같이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역사적 예수보다는 영적인 몸을 소유한 부활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부각시켰다. 신약성서에는 이런 기독교론에 대처하려는 사색들이 반영되어 있다.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유대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바울의 비난이나 요한 일서에 나오는 가현설에 대한 경고 등은 그런 예에 속한다(고전 9:1-2; 갈 1:5-12; 요일 2:18-27; 4:1-5; 비교, 요이 7; 요삼 3:9-10). 교회관이나 종말론, 삼위일체 교리

등과 연관되어 발생한 이단 분파들은 주로 신약성서시대 이후의 교회사에서 발견된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지만, 그들은 원래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침내, 다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요일 2:19).

이 구절에 언급된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요일 2:22). 이처럼 이단이란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교리를 받아들이거나 펴뜨리는 자들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쫓아버려야 할 대상이다. 이단에 대한 이 같은 경고가 사도시대 이후에 접어들면 “멸망케 할 이단”(벨후 2:1)이란 용어로 정리된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이끄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벨후 2:1).

이단이란 한 마디로 교회를 “파멸로 이끄는” “거짓 예언자들”이다(비교, 딤후 3:10). 신약성서의 여기 저기서 만나게 되는 거짓 예언에 대한 경고(마 24:11, 24), 거짓 사도들에 대한 경고(고후 11:13),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딤후 1:7) 등은 모두 그런 부류에 속한다. 여기에서 “거짓 예언자”로 규정된 자들은 모두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케 하거나, 주님의 재림이 이미 도래했다고 주장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전하거나, 거짓으로 예언하거나,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소개하거나 하는 사람들이다(마 24:5, 23-27; 고전 15:3-5; 고후 11:4; 갈 1:6-9; 살후 2:1-2, 9; 딤후 2:16-18; 뱀후 2:1; 요일 4:1-6).¹⁹⁾ 즉,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기독교론에서, 나아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라는 속죄론에서 신약성서의 이단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내에 심각한 분란과 갈등을 일으켰던 것이다.

5. 이단과 정통, 성서신학적 교훈

이단으로부터 정통을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바른 믿음을 실천하는 일이다.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정통과 이단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은 바른 믿음을 자기들의 삶 속에 적극 실천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 구약성서의 참 예언자들이나 신약성서의 베드로와 바울 등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 정통 신앙(orthodoxy)과 정통 실천(orthopraxis)은 서로 별개가 아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행동(삶)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바르게 아는 것을 바르게 지키며 실천하는 노력이야말로 정통으로부터 이탈하는 이단을 막는 가장 적극적인 처방이다. 이런 전제에서 지금까지 살펴 본 참과 거짓, 정통과 이단에 관한 토론은 다음 몇 가지 성서신학적 주제들로 정리된다.

첫째, 거짓 예언자나 이단 분파에 관한 논쟁은 교회라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identity)을 지키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바른 믿음을 이단의 도전으로부터 지켜내려는 노력은 신앙공동체를 결속시키려는

19) Bowman, *Orthodoxy and Heresy*, 77-78.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신약성서의 증언 속에서 이단의 맞은편에는 분명 교회가 서 있다. 이단에 대한 솔한 경고는 교회를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이다. 교회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특별한 소수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결코 “은밀한”(esoteric)한 자들의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며,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부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란 공동체는 하나다”라는 뜻과 함께 교회는 “코이노니아”(koinonia)라는 뜻을 나타낸다. 교회는 처음부터 공동체이었다. 신분과 계층과 성별 등의 차이를 뛰어 넘는 공동체이었다. 이것을 바로 인식할 때 교회는 “하나됨”을 이룩할 수 있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롬 12:4-5).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되는 공동체를 이룬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어떤 유대 공동체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아니, 부를 수 없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기에 예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예배에서 예수를 결코 주님으로 부를 수 없었다. 때문에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주어야만 하였다. 정통성의 판단 기준에서 예배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이런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代贖)

의 은총이 역사한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로서의 교회관은 초기 교회가 영지주의 같은 이단 분파들과의 투쟁에서 얻은 소득이라고 보아야 한다. 영지주의가 그리스도인의 영적 계몽에만 관심을 쏟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공동체는 그 초기부터 하나님 신앙에 관한 교회(에클레시아)와 이단(하이레시스)의 공존을 허용하지 않았다(갈 5:20; 고전 11:18-19). 에클레시스와 병존하는 또 다른 집단을 결성하여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일개의 “하이레시스”로 만들어 버리려는 그 어떤 시도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벧후 2:1-22). 이런 맥락에서 이단 분리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깨뜨리거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의 순결성을 훼손하는 자들이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더 이상 한 몸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단 분리론자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참조, 엡 4:3), 교회 안에서 이단적 분파가 확산되어 가면서 교회의 역사는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과 관련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교부들 가운데 이단이란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속사도 교부인 이그나티우스(Ignatius)이다. 이그나티우스는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무리를 지칭하는 용어로 이단이란 말을 사용하였다. 이그나티우스는 교회의 감독이 할 일은 교회의 단일성을 해치는 자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주후 2세기 사도권이 감독을 중심한 교권적 지도자로 계승되게 되면서 정통과 이단의 구분이 확립되어 갔던 것이다.

둘째, 신약성서가 고발하는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과는 “다르게” 전하던 자들이다. 다시 말해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예수의 인성을 거부하는 사상이다. 교회의 역사에서 전자는 예

비온파로, 후자는 영지주의 가현설로 나타났다. 전자는 예수를 단순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사나 훌륭한 인격자로만 보려고 하면서 예수의 구속 능력을 부정해 버렸다. 후자는 지상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인간이 아니라 천상의 영적 존재의 환영(幻影)이라고 함으로써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버렸다.

신약성서가 전하는 최초의 신앙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는 고백이다(고전 12:3; 롬 10:9; 빌 2:11).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막 3:11; 눅 4:3; 행 9:20),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였다(롬 4:24; 10:9; 살전 1:10). 기독교 신앙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성만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신조를 낭송하게 함으로써 신앙의 공동체성을 다 잡하며 확인한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임을 믿고 따라야 한다. 바로 여기에 이단을 판별하는 복음적 원리가 부상한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행동이나 보상이라도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에 의한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어떤 인간도, 어떤 위인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 받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떠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룰 수 없다. 바른 믿음은 이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²⁰⁾

셋째, 정통과 이단의 구분은 기독교 신앙공동체가 믿는 하나님 신앙의 본질(integrity)을 지키는 과제로 이어진다. 기독교 신앙공동체가 정경으로 고백하는 성서는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언약인 구약은 유일신 하나님 신앙(Monotheism)을 고백하고 증언한다. 두 번

20) 비교, Bowman, Orthodoxy and Heresy, 59-67.

째 언약인 신약은 삼위일체 하나님(Trinity)을 고백하고 증거한다. 엄밀히 말할 때 유일신 하나님 신앙과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은 서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대할 때 기독교신앙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틀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론”(Theocentric Christology)이거나 “기독교론 중심의 신론”(Christocentric Theology)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바른 하나님 신앙이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 안에 계시되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한다는 말이냐?” (요 14:6-9)

예수는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요 14:6). 예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요 14:7, 9). 이처럼 구약성서가 고백하는 유일신 하나님 신앙은 신약성서에 가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으로 확대되었다.

넷째, 정통과 이단의 구별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성서”(sola scriptura)라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지키는 일이다. 기독교 신앙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규범은 성서이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가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정경(正經)으로 인정되는 것은 주후 4세기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그러나 구약성서의 말씀은 주후 1세기에 이미 신앙공동체의 정경으로 자리잡았고, 신약의 복음서와 바울의 편지들도 주후 2-3세기에 가서는 구약과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신약성서의 말씀들이 정경으로 인정되기 전에 이미 “거룩하게” 읽혀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회 내부에서 논쟁과 갈등이 벌어졌을 때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성서이다. 이단은 성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성서의 말씀을 훼손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이단이 성서의 증언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성서 구절을 자의적(恣意的)으로 인용하거나 나열만 할 뿐, 결코 바로 해석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단 사상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성서의 바른 해석이 요청된다. 최소한 문법적, 역사적, 문예적 해석이 요청된다. 해석되지 않은 성서 본문은 자칫 성서문자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오늘날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들이야말로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성서 구절을 술하게 인용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들은 성서 본문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바르게 해석하지는 않는다. 성서 본문을 다만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풀기만” 할 뿐이다.

다섯째,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이 과제 앞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 규정들을 준수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다. 예전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와 세례가 모두 필요한 것인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신앙에서 구약의 율법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심각한 물음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초대교회 시절에 열린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런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을 도출해 낸 경우이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행 15:28-29).

예루살렘 회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구약성서의 율법 규정 모두를 지키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기본적인 규칙 몇 가지만 지키면 된다는 것을 공표하였다. 율법의 준수에 대한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교회의 공식적인 회의에서 결정된 선언문 같은 성격을 띤다. 이런 식의 선언은 교회의 전통이 되게 되고, 그런 선언문은 나중에 교회사의 무대에서 신조의 형식으로 다듬어지는 자료가 되었다.

신조는 신앙공동체의 전통을 표현하는 형식이다. 신앙공동체의 전통은 진리의 규범과 바른 신앙의 기준(*regula fidei*)이 된다. 누구나 성서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해석이 교회의 전통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교회의 신조에 따라 이단을 판별하는 원리가 된다.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들은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교회의 정통을 지키는 신뢰할만한 울타리가 된다. 물론 신조가 영감 받은 문서는 아니다. 그렇지만 신조는 진리를 표현하는 수단이자 통로이다. 기독교적 신앙과 삶을 “다르게” 가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정된 양식의 언어로 기독교 신앙을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신조이기 때문이다. 구약성서의 신명기와 역사서에서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신앙고백(신 6:21-23; 26:5-10; 수 24:2-13 등)이나 신약성서의 사도행전에서 줄곧 반복되는 설교(행 2:14-36; 7:2-53; 13:16-41 등)가 바로 그런 신조의 모형에 해당된다.

교회사적 입장에서 본 이단 문제

김기련 교수

목원대 교수
독 프랑크푸르트대학원 철학박사

I. 서 언

‘이단’(heresy)의 어원적 의미는 인간이 선택하여 좇는 당파나 학파를 의미했다.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대체로 교회 안의 분파와 그 추종자들을 비판하면서 사용되었다. 이를테면 이단에 대한 경고에 있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고전 1:10-31),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유대 주의자들(갈 1:6-14),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이단의 그릇된 교훈(골 2:8-15), 이단의 어리석은 논쟁(딤후 3:9),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요일 2:18, 요이 1:7), 이세벨의 미혹과 음행(계 2:19-20) 등이 그것인데 이것은 이단 문제가 신약교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단의 성경적 개념은 하나님의 뜻인 진리에 위배되는 이론과 모든 행동 양식을 통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문의 뜻을 보면 이단(異端)은 “시작은 같은데 끝은 다르다”는 뜻이다.

기독교의 교리 중 신비적 요소는 기독교의 생명과도 같다. 예수 그리스

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고난, 부활, 승천 그리고 영생과 같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하나님의 진리인 동시에 신비 그 자체이다. 이러한 신비적 요소는 본질상 누구나 보편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인간에게 의문시 되었고 잘못된 해석의 결과로 정통 교리를 위협하는 이단이 발생하게 되었다.

기독교 내에서 이단이란 사도적 전승인 참 신앙과 정통 교리를 받지 않고 거짓 신앙과 거짓교리를 주장하는 집단이다. 이단들의 공통된 점은 정통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정통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거나 전부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일부에 대한 지나친 강조,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의 해석으로 성경전체를 왜곡하는 일이 허다하다. 그러므로 교회사에는 매 시대별로 정통에 대한 이단의 도전이 점철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기독교를 빙자한 사이비(似而非)종파는 이단이란 말과는 다른 의미로 쓰인다. 사이비종파란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잘못된 신앙운동을 말하는데 엄격히 말한다면 통일교나 천부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 같이 기독교를 빙자한 유사종교 집단으로 기독교 같지만 기독교가 아닌 집단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 또는 기독교 이단이 가져오는 역기능은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시켰다. 재산을 갈취하고, 여신도를 간음하여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 신도를 살해하는 행위, 교주를 신격화 하는 행위,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 수혈을 거부하는 행위,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 사회 질서의 교란하는 행위 등등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반사회적 행위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는 교리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다.

또한 그 외에도 기독교 내의 이단은 ○○파, ○○교, ○○운동으로 나타나 어느 특정한 교리를 부각시켜 기성교인들을 자기들의 조직으로 유혹하였다. 이들 이단은 지금도 정통교리와 신학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신학과 교리를 내세워 사람들을 유인하여 자기들의 사설왕국을 만들고 있으며 이 일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고 교계에 비난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자기의 집단과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명목으로 다른 교회 신도를 유인하는 것은 ‘양을 도적질하는 것’ 이요, 목회자적 양심을 저버린 행위인 것이다.

이단이 가져오는 신앙적 문제와 폐해는 또 얼마나 심각한가? 이단은 사회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교계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이단은 신앙적으로 건전한 가정에 분란을 가져오게 했고 정통교회를 이탈하여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독자적 이론을 가지고 정통 신학에 도전함으로써 신앙 정체성의 혼란을 유도하기도 한다.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신학 이론, 정치적 영향, 성경 해석의 차이, 제도권과의 관계 등등 시대마다의 실로 정통에 대한 다양한 도전들이 감행되었고 순수 신앙과 신학을 지키려는 노력 또한 치열하였다. 정통신앙을 지키려는 노력들은 또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할 그 시대적인 사명으로 여겨졌다.

교회사에 나타난 이단들을 살펴보면서 시대에 따라 어떤 배경으로 이단이 발흥했으며 신앙의 선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단에 대응을 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이단대책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II. 이단 발생의 요인

1. 정치-사회적 요인

종교가 발생하는 원인을 따지려하면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재 자체의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 종교자체는 인간의 실존과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

기 때문이다. 인간의 종교적 욕구는 본능에 가깝다. 한 사회의 전체적인 동요나 불안이나 혼란, 또는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미치는 특수한 위기의식은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종교적인 욕구를 대중적으로 양산하는데 가장 좋은 배경이 되어왔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이단으로 하여금 번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 사회가 불안할 때 기존의 질서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이상 사회를 기대하거나, 기득권에서 소외된 계층들의 사회체제의 전복에 대한 욕구는 한층 더 고조되기 마련이었다. 이 때 이들의 욕구에 가장 적합한 이상과 신념체계를 제공하고 따르게 한다면 그것은 곧 메시아운동으로, 종교로 성장하기 마련이었던 것이다. 2세기 후반 로마의 정치적 불안과 기독교의 경건성의 해이를 배경으로 발흥한 이단은 몬타누스파 운동이다. 이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며 천년왕국 건설의 긴급성을 외치고 다녔는데 부르기아의 지경을 넘어 급속히 소아시아 전역과 시리아 및 안디옥까지 파급되었고 이 운동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독자적인 교회를 형성하여 정통교회와 대립하게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한말의 위기 상황에서 흠치교(창시자-차경석), 증산교(창시자-강일순, 1901), 단군교(창시자-나철, 1909) 등의 사이비 유사종교가 발흥했다. 한국전쟁 후 불안한 한국사회에 기독교를 빙자한 유사 신앙집단이 많이 발생하였고 점차 종말론적 탈세속화의 신앙형태로 변질되어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하였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기성교회 신앙인들은 현실도피 성향과 기독교 유사집단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곧 박태선의 전도관(천부교), 문선명의 통일교, 이퇴자의 세일교단, 장막성전 등의 이단이 발호였다.

2. 교회의 분파적 운동

교회 내에서 순수신앙을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정통교회에서 분리해 나간 분파주의 이단이 발생했는데 그들은 노바티안파와 도나투스파이다.

노바티안(Novatian, ?-257/8)은 데키우스(Decius)황제 박해(249-250년)시 배교했던 자들의 처리 문제로 교회를 분리해 나갔다. 로마 교회는 배교자의 처리 문제로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어졌다. 로마 교회의 온건 다수파는 감독 코르넬리우스를 따랐고 배교에 엄격한 강경파는 장로인 노바티안을 따랐다. 그의 주장은 살인, 간음, 배교는 교회가 사해줄 수 없고 오직 마지막 심판 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상숭배, 배교, 살인, 음행을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로 생각하였다. 강경파는 노바티안을 대립 감독으로 선출하였다. 로마회의(251년)와 칼타고회의(252년)에서 다수파가 승리하여 노바티안을 축출하고 배교자들을 회개시키고 재 허입을 결의하였다. 251년 로마회의의 결정에 따라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사유를 얻게 되었다. 이에 노바티안파는 불복하고 교회에서 분리해 나가 7세기까지 유지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배교자는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도나투스(313-355)파도 교회를 분리해 나갔는데 도나투스파가 이해한 '교회는 청교도적 관점에 따라 엄숙주의를 고수하여 실제로 선남선녀만으로 구성된 사회'라는 것이다. 진정한 교회는 순수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자신들만이 성서가 입증한 참된 카톨릭 교회(ecclesia catholica)라는 것이다. 그들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결점 없는 신부요, 흠과 티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배교자들이 행한 성례는 무효라 주장하면서 성례전의 타당성은 베푸는 성직자의 합당성에 달렸다고 보았다. 교회가 합당치 못한 자들, 곧 배교자들로

교회 내에 그들의 직위를 머물게 하면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주장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교자로부터 받은 세례와 성찬과 안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카톨릭 교회에서 그들 도나투스파로 들어오려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도나투스파는 어거스틴 시대에 북아프리카 교구의 절반을 차지한 이단이 되었다.

3. 종교 혼합주의 영향

종교 혼합주의를 원인으로 발생한 대표적 이단은 영지주의이다. 종교의 신념 체계는 진리로서 순수하게 보존해야 할 필연성이 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해도 종교적 진리는 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성경 해석에서 관점의 차이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진리는 보존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교회사에서 기독교 진리는 변질될 수 없는 지고의 권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사상에, 시대의 필요에, 제도권의 그늘 아래서 핵심적 진리조차 늘 가변적 대상이 되어져 왔다. 기독교회가 헬라의 영향권 안에 있을 때 헬라의 철학 사상과 사색적 관행들이 기독교내에 침투해 순수한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었다. 2세기에 대표적 이단 영지주의는 영지주의 자체만으로도 한 가지 사상으로 정립되지 않는 대표적 혼합주의 사상이다. 또한 이단 사상으로 인해 정통 교회의 탄핵으로 추방된 경우 추종자들을 모아 세력을 형성하고 교회를 설립하여 확장시킴으로 정통 교회에 큰 위협을 가하는 이단들도 있었는데 대표적 예가 마르키온파 이단이다. 마르키온은 자기 고향 폰투스 교회에서, 그리고 로마교회에서 추방되어 추종자들을 모아 세력을 형성하고 자기들만의 교회를 확장시켜 나갔는데 초대교회에 마

르키온파 이단은 가장 위협적인 이단이었다. 그는 영지주의 사상에 기독교 원리를 혼합하여 자기 특유의 유사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냈다. 즉 신, 구약 하나님을 서로 분리시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영지주의적 가현설을 제시했으며 성경을 취사선택하였다. 마르키온은 여행을 통해 그의 사상을 퍼뜨렸고 여러 나라로부터 많은 추종자들을 얻게 되었으며 마르키온파 교회까지 설립하였다. A.D. 150년에는 이미 그의 교리가 모든 나라에 퍼져 나갔고 155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로 마르키온 사상이 스며들었으며 6세기까지 마르키온파 모임이 여전히 동방에 존재하여 카톨릭 교회에 무서운 대적자가 되었다.

4. 교리 논쟁 및 교권 싸움

무엇보다도 이단 출현의 가장 주된 이유는 교회 내에 있다. 크게 보면 1054년 동방 헬라정교회와 서방 로마가톨릭으로 분열된 원인은 성령론에 있어서 일원출원설과 이원출원설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결과였다. 또 구교와 신교가 갈라진 1517년 종교개혁 또한 교리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이 한 원인이 된 게 사실이다.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끈질긴 교리적 논쟁이었던 아리우스 논쟁을 빼놓을 수 없다. 아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다. 유일신은 하나님 한 분 뿐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 감독이 아리우스의 이론을 정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그치지 않자 콘스탄틴 황제는 325년 니케아 회의를 소집하였고 여기서 아타나시우스는 아버지와 아들의 동질을 천명했다. 그리고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했다고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번엔 그리스도의 신성

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해 버린 아폴리나리우스가 등장했다. 아폴리나리우스는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라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죄를 범하지 않은 이유는 로고스가 예수의 영의 좌소(座所)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381년 콘스탄틴 대회에서 정죄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양성의 문제는 일단락 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양성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는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서로 교통(交通)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수난은 신성의 동참 없이 그리스도의 인성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키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양성의 연합을 주장했다. 인성만을 가진 단순한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황제는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키릴을 인정하고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한다. 이 후에도 그리스도 양성론은 계속되다가 680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칼케돈 결정이 재확인 되면서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본 논고에서는 기독교 논쟁을 일부 다루었지만 그 밖에도 성령론, 인간론 등의 교리 논쟁은 수많은 이단들을 결정지었다.

이러한 교리 논쟁들이 정죄하고 정죄 당함으로 수많은 이단들을 양산했으나 논쟁 자체만이 이단 양산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논쟁에서의 승패는 곧 바로 교권의 쟁취로 이어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치적 요소가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세기를 지배했던 두 주요 사상학파는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 학파로서 4세기의 논쟁은 이 두 학파 중 누가 교권을 잡느냐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아리우스주의 이단과 대적하는 논쟁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했고 안디옥 학파는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를, 곧 인성을 강조하였다.

5. 카리스마적 교주의 영향

어느 한 개인의 카리스마적 집권력에 의해 형성된 이단 집단은 대부분 그 지도자가 교주가 되고 이들 교주들은 스스로 자신을 신격화하여 사람들에게 하여금 숭배하게 한다. 이런 교주들은 대부분 금전적 요구, 부적절한 성(性) 관행으로 신도의 삶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다. 이런 종류의 이단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이다. 주체적인 사상을 갖고 정당성의 여부를 숙고하지 못하고 자아 정체성이 약한 사람들은 이러한 혹세무민(惑世誣民)적 유혹에 곧잘 이용된다. 이들은 대부분 교주에 대한 막연한 확신으로 시작해 맹목적 복종으로 이르게 되는데 낮은 지식 계층에서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지성의 요람인 대학에서조차 이런 종류의 이단이 성행하는 것을 보면 꼭 지식만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

특히 한국인들은 의존심성이 강한데 그 이유는 한국인의 심성에 끼친 영향을 의타심, 운명신앙, 역사의식의 결여, 주술신앙을 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유독 한국은 이런 종류의 이단이 기승을 부렸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에서 발생하여 세계적 이단으로 성장한 통일교의 문선명을 들 수 있다. 또 천부교의 박태선, 얼마 전 작고한 영생교의 조희성, 한동안 대학가를 활동 무대로 했던 J.M.S의 정명석 등이 대표적인 이단이다.

III. 교회사에 나타난 중요 이단 사례

1. 에비온주의

초대 기독교가 당면한 과제는 기독교 탄생의 모태인 유대교와의 관계

정립이었다. 메시아 대망의 성취에 대한 의구심, 절대적 진리였던 율법의 문제, 이방인에 대한 태도 변화의 요구,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은 유대교 신봉자들을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혼란들을 수습하고 질서있는 기독교의 성장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내에서 혼란의 불씨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 유대화 운동의 분파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대화 운동의 성격을 띠고 나타난 초대 기독교 이단이 에비온주의이다.

에비온주의는 이 세상에는 선의 원리와 악의 원리가 있는데 선의 원리는 장차 올 세상을 통치하고 악의 원리는 현 세상을 다스린다고 주장한다. 선의 원리와 악의 원리는 각각의 인물들을 역사를 통해 배출하는데 아담, 아벨, 이삭, 예수 등이 선의 원리에서 성육신 된 인물로서 선지자이며 카인, 이스마엘, 세레요한 등이 악의 원리에서 현현된 인물이라고 한다. 그들에 의하면 예수는 선의 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 선택된 인간으로 세레 받을 때 위로부터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예수의 사명은 인간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주어진 율법을 순종하도록 인류를 부르는 데 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율법을 완성시킨 분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이 더 이상 믿는 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율법의 본보기의 차원에서의 완성이라고 주장한다. 사실상 에비온 주의의 영성의 핵심은 율법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사도 바울을 유대반역자로 간주하였다. 또 이들은 예수가 세레 시에 위로부터 능력을 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위력을 양자론적으로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자기들이 보편적 기독교와 유대교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고 했으나 이들은 예루살렘교회와 정통 유대교파 모두에게 배신자로 정죄되었다.

2. 영지주의

유대교와의 관계정립이 내부적인 계속성에서 요구되는 과제였다면 초대 기독교에게 헬라문화는 외부적인 범람에 대한 정체성 확립의 문제였다. 헬라문명은 언어적으로 초대 기독교의 확산에 최상의 시대적 적기(適期)였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최고의 경지에 올려진 인본주의적 지식과 무차별적 개인적 사상들의 난무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시대 앞에 진리를 규명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헬라의 토양에서 서식한 기독교 이단의 가장 큰 조류는 영지주의이다.

영지주의 성격을 일관된 이론으로 규범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영지주의란 독립된 개체적 분파나 이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비슷해 보이는 사상과 실천적 경향들을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 안에 있는 대체적인 경향에 따라 영지주의가 기독교회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던 요소들을 살펴본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구원의 교리이다.

영지주의에 의하면 영이 물질적인 것들과 연합되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영을 이 상태에서 해방시켜야만 한다고 말한다. 사람의 몸은 물질적이며 영만 오로지 몸에게 생명과 욕망과 열정을 부여해 준다. 영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신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 영이 이 세상에 떨어져서 물질의 포로가 되었고 따라서 영을 감옥으로부터 해방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해방은 지식, 즉 그노시스(gnosis)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원자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영은 우리를 물질세계와 묶어 놓은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지식의 획득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해방의 계시를 전달해 줄 사자가 와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이 사명을 완수할 사자라고 말한다.

인간의 영이 물질 안에 갇혀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주된 특징적 흐름이 있다. 그것은 파생적인 이원론(derivative dualism)과 숫자풀이술이다.

파생적인 이원론의 이론을 보면 사실 일원론에서 시작하여 파생적으로 이원론에 이르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즉 단일한 영원한 원리에서 에이온들이 하향적인 과정을 걸쳐서 생산되며 마지막에서 가장 낮은 에이온의 실수로 물질세계가 생성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물질과 영, 천상적인 것과 지상적인 것들 사이에 파생적인 이원론이 전개되는 것이다. 숫자풀이술은 각층의 에이온들은 숫자적 양식을 따라 생산된다는 사상이다.

영지주의적 견해가 기독교회에 주는 위협적 요소는 먼저 창조론이다. 즉 가장 낮은 에이온의 실수로 생성된 것이 물질세계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기독교 창조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창조론은 곧 바로 전통적인 기독교의 기독교론을 위협한다. 즉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라면 인간의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인간 그 자체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육체를 입은 것은 가짜이며 진실은 신성만 가지고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그리스도가 몸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가현설(Docetism)을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다.

3. 마르키온주의

마르키온은 소아시아 남쪽해안에 있는 폰투스(Pontus)에서 정통파 교회 감독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나 그의 잘못된 이단사상 때문에 고향

을 떠나게 되었고 잠시 머물렀던 로마교회에서조차 배척을 받고 쫓겨나게 된다(144년). 그러자 마르키온은 자기만의 교회를 세워 새로운 종교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결국 초대 기독교회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에 이른다. 마르키온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게 된 직접적 원인은 그가 로마에 있을 때 영지주의자 케르도를 만나면서부터이다. 케르도는 마르키온에게 영지주의 핵심이론인 이원론을 전수시켰고 이것은 마르키온을 영지주의의 영향력에서 분리시킬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사실 마르키온의 신학과 그의 활동은 영지주의와는 크게 다른 점이 많았다. 즉 그는 영지주의와 같이 복잡한 철학적 사상을 전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구원을 얻는 데 비밀스런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마르키온의 주장은 당시 교회의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을 경시하는 풍조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 그는 잊혀질 듯 했던 바울의 사상을 다시 발견하면서 신학에서 도덕주의가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났던 시기에 오직 믿음에 의해 구원을 선포했던 사람이다. 마르키온은 교회의 은총에 대한 경시 풍조의 원인을 교회가 복음을 유대교와 결부시키려한 데서 찾았다. 이것은 곧 마르키온으로 하여금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키는 특징적 작업을 수행케 했고 유대적인 것에 대해 배타성을 갖게 했다. 그러나 그의 반(反)유대성향은 이원론으로 발전하여 그로 하여금 영지주의로 가는 고리역할을 하게 했고 이것이 바로 이신득의(以信得意)의 구원관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지주의와 완전히 분리시킬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마르키온에 의하면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은 물질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Demiurge)로서 자비가 아닌 율법과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며, 그의 백성에게 피의 제사를 요구하고, 아버지의 잘못을 자손 삼, 사대까지 돌리는 하나님이다. 반면 이러한 세력에 대항해서 근원이 전혀 다르고 보

다 높은 하나님이 계시는 바 그가 바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복음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았다.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며 그의 임무는 구약의 하나님과 투쟁하여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원론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의 출생은 부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물질자체는 조물주 데미우르가를 근원으로 하는데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한다면 그리스도의 근원을 물질세상의 근원인 데미우르가로 인정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르키온은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동정녀 탄생도 부인했고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한 인간과 일시적으로 결합하시어 티베리우스 통치 15년에 성인의 모습으로 갈릴리에 갑작스럽게 강림하셨다고 주장한다. 결국 마르키온은 유일신 하나님의 역사적 통치를 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므로 가현설(Docetism)을 끌어들이고 그에게 영지주의 이단의 특성을 갖게 한 것이다.

이것은 그의 성서관에도 영향을 미쳐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외한 누가복음의 일부분과 그리고 마르키온 자신이 바울의 신봉자이면서도 바울의 서신 중 유대인 독자들을 차별한다고 여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서신들만 인정하게 했다. 유대인 독자들을 우대한다고 믿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등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구약은 아주 일부분, 그것도 저급한 하나님의 계시로서만 인정했다.

결국 마르키온은 바울의 메시지와 교회의 선포의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바울의 메시지까지도 반대하게 되었고 자신이 주장했던 긍정적 가치까지도 인정받지 못하는 불행을 낳고 말았던 것이다.

4. 몬타누스주의

헬라의 영향력을 기독교적으로 오용한 이단들만이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아니었다. 2세기 후반 교회가 초대기독교의 열정과 순수함을 잃고 헬라문화의 요구에 동화되어 가면서 세속화의 현상을 보이자 교회 안에는 개혁을 표방한 분파(分派)운동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성격을 띤 대표적 분파운동은 몬타누스파 운동이다. 몬타누스파는 개혁의 목표를 원시 기독교의 부흥에 두고 청교도적인 개혁에 힘쓰며 엄격한 윤리규범을 요구했다. 그러나 몬타누스파의 윤리규범은 지나친 과장으로 인해 기독교적 요구에서 벗어난 금욕주의(禁慾主義)로 흐르게 되었다. 이들은 성경의 계명보다 더 자세한 생활세칙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였고 신앙생활을 율법주의로 해석하여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보다 금기(禁忌)로 일관된 소극적 금욕생활을 강조했다.

사실상 몬타누스파 운동은 극단성을 띤 것이었으나 어디까지나 기독교에 뿌리를 둔 운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타누스파를 극단성을 지나 이단으로 낙인한 것은 이 운동을 가장 뚜렷하게 특징짓는 예언활동 때문이었다. 예언은 성경적이며 또한 당시 기독교 사회에서 통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문제시 될 것이 없다. 문제는 예언의 내용에 있다. 몬타누스는 이교도 사제였는데 155년경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했다. 개종한 후 얼마되지 않아 몬타누스는 자신이 성령을 받았으며 자신은 요한복음 14장에 약속된 성령의 대언자이고 최종적인 선지자로서 이후로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선지자적 영이 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곧바로 프리스킬라(Priscilla)와 막시밀라(Maximilla)라는 두 명의 여인이 몬타누스파 운동에 합세하였다. 이들은 자기들에게서 계시의 시대가 끝나고 곧바로 세상의 끝이 올 것이므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천년왕국이 건설 될 브리기아 지방에 모여 주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했다. 이에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감독회의를 열고 여러 번에 걸친 토론 끝에 몬타누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5. 펠라기우스주의

펠라기우스는 영국 출신의 수도사로서 5세기 초 어거스틴과 비슷한 시기에 로마에 도착하였다. 그는 성격이 온순하고 품행은 단정하고 지식면에서는 명석하였다. 그는 로마의 도덕적 부패를 시정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당시 로마사회와 교회의 도덕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조하고 퇴폐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운명론적인 결정론에 빠져 인간으로서의 의지의 결단이나 책임감이 극히 결여되었다. 그에 대한 일종의 분노를 느끼면서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하여 많은 추종자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귀족들과 그 부인들, 사회의 지식인들, 심지어 기독교 사제들까지 포함되었다. 즉 펠라기우스의 신학은 마니교의 도덕적 결정론에 대한 반동(反動)으로 볼 수 있다. 마니교는 선과 악의 원리가 영원한 원리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악한 본성은 결코 선해질 수 없으며, 반대로 선한 본성도 결코 악해질 수 없다고 보았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범한 자신의 죄를 책임지지 않고 인간의 본성의 연약함으로 전가시키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펠라기우스는 코엘레스티우스(Coelestius)라는 젊은 법률가이자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인물을 제자이자 동료로 얻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로마에서부터 시작하여 시실리 섬으로 번져나갔다. 그의 이단 사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었으며 인간은 이 자유를 통해서 선과 구원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죄를 짓지 않을 능력(posse non peccare)은 창조시부터 인간에게 있었으며, 아담의 죄나

마귀까지도 이 능력을 파괴시킬 수 없다(펠라기우스).

2) 아담의 죄는 아담에게만 적용되지 전 인류에게 유전되지 않는다(코엘레스티우스).

3) 아담은 처음부터 죽을 사람으로 태어났으며 죄를 범하였든지 범하지 않았든지 간에 죽었을 것이다. 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죽음이 임했다(코엘레스티우스).

4) 새로 태어난 유아들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와 같다(아담과 동일). 따라서 유아들에게 원죄가 없다. 그러므로 무죄하기 때문에 세례가 필요 없다. 유아세례로 용서받을 수 없다(펠라기우스, 코엘레스티우스).

5) 하나님의 은혜가 돕지 않아도 사탄에게 대항할 수 있다.

6) 하나님은 사람의 공로에 따라서 은혜를 주신다.

7) 바울이 말한 예정이란 하나님의 주권적 신의로서, 그것에 의해서 구원을 받거나 정죄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결정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고 계신다는 뜻이다(펠라기우스).

8) 은총은 인간의 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죄를 용서해 주는 데 국한되어 있다(펠라기우스).

9) 율법도 복음과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로 이끌어 준다(코엘레스티우스).

10) 그리스도 이전에도 죄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

11) 전 인류는 아담의 타락과 죽음으로 인해 죽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부활되지 않는다.

12)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죄 없이도 살 수 있다.

13) 세례를 받은 부자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소유한 재산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공로가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도 못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어거스틴에 의해 철저히 분쇄되어졌다.

6. 모나르키안주의(Monarchianism)

영지주의와 마르키온의 주장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단일성을 옹호하고 2세기에 발달하기 시작한 삼위일체의 대두에 대해 삼위일체를 반대하고자 모나르키안파 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은 두 개의 이론으로 각각 발전했는데 역동적 모나르키안주의(Dynamic Monarchianism), 양태론적 모나르키안주의(Modalistic Monarchianism)가 그것이다.

역동적 모나르키안주의는 하나님의 단일성을 지키고자 그리스도 자체는 한 인간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신성(神性)은 하나님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force) 또는 권능(power)이라는 주장이다. 역동적 모나르키안파는 주창자의 이름을 따라서 테오도시우스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195년 로마교회에서 정죄를 받았다. 반면 양태론적 모나르키안주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그 자체를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으로 보는 이론이다. 즉 단일신 하나님이 창조자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모양만 다르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다른 아님 하나님 자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 이론을 성부수난설(Patipassianism)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양태론적 모나르키안파는 가장 변창시킨 사람의 이름을 따라 시벨리우스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며 258년 로마의 교회 회의에서 정죄되었다.

7. 카타리파

중세시대는 율도파, 몰라드파, 후스파와 같은 반체제 운동을 이단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교회의 '질서' 문제를 제외하고 대체로 정통의 신앙

입장에 서있었다. 따라서 이들을 이단으로 분류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중세에 가장 주목할 만한 이단은 12세기의 카타리파(Chthari, Patarenes, Albigensians)이다. 카타리파의 이론의 기원을 바울파, 보고밀파에서 보는 이론이 있으나 정확하지 않다. 카타리파는 중세 시대에 정통 기독교에 위협이 되었던 이원론 종파이다. 이들은 이 세상의 창조를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돌리고 영은 선의 원리에 속한 것으로 악한 세상의 물질 속에 갇혀 있는 전형적인 이원론의 형태를 띠었다. 이렇게 카타리파는 물질 세계의 창조를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돌림으로써 자연스럽게 가현설을 끌어들이었다. 즉 그리스도는 천상적 존재이지만 구원의 방도를 보여주기 위해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일부의 선택된 자를 ‘완전자’라고 부르며 입회하고자 하는 자에게 ‘몬솔라멘툼’이라는 의식에서 안수례를 베풀게 했다. 그리고 안수 받는 자는 이때부터 정절, 청빈, 금식으로 완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들은 지나친 금식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들을 반대하는 종교재판이 계속 이어져서 1179년 3차 라테란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십자군 출병’이 제기된 이후 13세기 인노센트 3세 때에는 실제 대규모 십자군 출병이 있었다.

8. 소시누스주의

종교개혁시대의 가장 큰 이단의 조류는 재세례파이다. 이들은 정통교리의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성인 세례만을 인정하여 다시 세례를 주자는 주장으로, 루터,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이 성경에 의해, 카톨릭 교회 안에서 개혁하려 했던 반면 이들은 새로운 교회 건설을 시도하였다. 재세례교도 중 주목할 인물은 1553년 10월 27일 칼빈과의 재판에서 도망치

다 화형 당한 스페인의 의사 출신 세르베투스이다. 그는 1531년 「삼위일체의 오류에 관하여」에서 니케아의 삼위일체 교리, 칼케돈의 기독교론, 유아세례가 교회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했다.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비판하면서 칼빈과의 재판에 회부되었고 결국 화형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삼위일체론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의 사상적 후손들이 이탈리아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라에리우스 소시누스(Laelius Socinus, 1525-1562)와 그의 조카 파우스투스 소시누스(Faustus Socinus)이다. 파우스투스는 그의 저서 「해설」과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각시키기 위해 승천시 성부가 성자에게 신성과 세계 통치권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파우스투스가 1605년 폴란드에서 죽은 후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라코비 요리문답」(Racovian Catechism)으로 집약시켰다. 그들에 의하면 성서는 인간의 오성에 영생의 길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서가 요구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상과 심판을 주시는 분임을 아는 것이다. 인간은 본래 죽을 운명으로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나 하나님이 성서와 그리스도의 삶을 모범으로 주셔서 이것에 따라 살 때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고 주장한다. 소시니안들은 따라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하게 주장했고 원죄와 예정사상을 부정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계시된 인간적 모범이 될 뿐이었다. 소시니안들은 전통적 삼위일체 교리와 기독교 교리를 거부하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부정함으로 1658년 폴란드에서 추방되었다. 그러나 17세기 소시누스의 글들과 사상이 영국에 소개되었을 때 유니테리안 신학을 탄생시키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

9. 우리나라의 대표적 이단

1) 통일교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대표적 이단은 통일교이다. 이들의 주요교리는 먼저 인류의 타락에서 시작된다. 창 2:17의 내용은 하와가 사탄과 음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하와는 또다시 아담과의 동침을 통해 사탄의 더러운 피를 인류에게 전가시켰다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타락이다. 그리고 타락으로 인한 복귀론을 전개하는데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 영적 구속사업을 완성하지만 육적 구속 사업에 실패를 하였다. 이 육적 구속사업의 완성을 위해 재림주가 1920년 한국에 재림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문선명이라는 것이다.

통일교는 성경 66권의 31173절 중에 약 800여 구절로 만들어진 통일교의 원리강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통일교 신조를 보면 제 3조에서 통일교는 예수를 단순한 인간의 구주요, 복귀된 선의 조상 정도로 믿고 있다. 제6조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고 이 땅위에 천국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사상을 통일하여 문선명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동산 복귀역사도 역시 타락한 순서의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 성적 관계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인류의 구원은 영적 구원에 그쳤으므로 육적 구원은 재림주인 문교주에 의해서 이룩된다는 것이다.

2) 여호와 증인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며 현실의 모든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1872년 미국의 러셀을 중심으로 발생했고 우리나라에는 1912년 선교사 R. R 홀리스터가 내한하여 선교활동을 하였다. 교리는 아마겟

돈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 현재의 부패된 사탄 조직제도가 멸망하고 마침내 지상에 그리스도의 천년통치가 온다는 주장이다. 신자는 신의 증인으로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국기와 사람에게 경례하지 않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이들의 주요교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정면으로 부인한다. 그들은 삼위일체를 삼신(三神)으로 오해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최후의 순수한 인간이므로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성령-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한다.

인간관- 인간의 영혼불멸설을 믿지 않는다.

현실 세계에서 부딪치는 문제점-집총거부 및 병역의무기피, 수혈 거부, 가정윤리 포기(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마 10: 36), 그들 교리에 위배되는 직업 포기, 국가체제를 사탄으로 간주, 애국기와 국기배례 거부(국기는 우상이다) 등등.

3) 구원파

구원파는 권신찬, 이요한, 박옥수 등의 계열이 있다. 본류는 권신찬 계열이고 여기서 이요한 계열이 분파되었다. 권신찬, 이요한, 박옥수는 ‘믿음의 한 가지 기능인 깨달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한다. 구원을 위한 단회적 회개와 성화를 위한 반복적 회개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하면 지옥 간다는 주장은 그들을 명백한 이단으로 구분짓게 한다.

구원관- 한 번 회개하면 구원받은 것이고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다. 회개에는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는데 성화에 대한 회개는 말하지 않는다.

교회관- 보이는 제도적 교회를 부인한다. 제도나 조직이나 건물이 교

회가 아니라 거듭난 자들 자체가 교회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가시적 교회를 부인한다.

말세론- 세상이 멸망할 때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일시에 휴거되어 구원받는다고 한다.

이 밖에 외래적 이단으로는 물몬교를 들 수 있고 자생적 이단으로는 천부교, 증산교 등을 들 수 있다.

IV. 이단의 특징들

이단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1.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

- 1)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다.
- 2)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부인하거나 다르게 말한다.
- 3) 하나님의 인격성을 부인하거나 삼위일체를 부인한다.
- 4) 하나님 외에 다른 귀신이나 천사, 조상들을 섬긴다.
- 5) 모든 것이 다 신성하다고 하거나 물질과 신을 동일시한다(범신론, 다신론, 자연신론).
- 6) 인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거나 인간이 곧 신이 될 수 있다고 한다.

2.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인하는 경우

- 1)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다.
- 2)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어느 한 쪽을 부인한다.
- 3)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을 부인하거나 제한한다.
- 4)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의 다른 구원의 방법을 말한다.
- 5)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을 부인하거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구세주를 말한다.
- 6) 구약적 제사의 필요성을 말한다.

3. 성령을 부인하는 경우

- 1)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한다.
- 2)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한다.
- 3) 귀신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와 동일시한다.
- 4) 인간의 종교적 수양에 의한 심성개발을 성령의 체험과 동일시한다.
- 5) 성령의 실재적 사역을 부인하거나 제한한다.

4. 성경을 부인하는 경우

- 1) 성경이 유일한 말씀임을 부인한다.
- 2) 성경 이외에 다른 책(교주의 어록)도 성경과 동등하게 믿는다.
- 3) 성경 이외에 다른 신앙의 규범을 가진다.
- 4) 성경의 신적 계시와 그 권위를 부인한다.

- 5) 성경의 일부만 취사선택 한다(성경 일부만 믿는다).
- 6) 성경에 없는 교리를 만들거나 성경적인 진리를 부인하거나 다르게 가르친다.
- 7) 성경 외에도 계속적인 계시를 주장한다.
- 8) 성경의 진리와 여러 가지 다른 종교 및 철학적 사상들을 혼합하여 가르친다.

5.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인하는 경우

- 1)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부인한다.
- 2) 보이는제도적 교회(개 교회, 교단, 교회제도)를 부인하는 무교회주의.
- 3)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부인하고 인간적인 제도와 조직만을 교회로 여긴다.
- 4) 기성교회를 부인하고 자기들만 유일한 참 교회라고 주장한다.
- 5) 자기들 교파(모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한다.
- 6) 어떤 특정한 지도자의 받아 참 교회라고 주장한다.

6.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부인하는 경우

- 1) 원죄를 부인하거나 선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주장한다.
- 2) 믿음뿐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구원 받는다고 주장한다.
- 3) 구약적 율법들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고 주장한다.
- 4) 구원받았는지는 죽어봐야 안다고 주장한다.
- 5) 구원을 얻었다가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 6) 다른 사람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 7) 인간의 전적 부패를 부인하거나 신인협동 설을 주장한다.
- 8)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

7. 인간을 신격화 하는 경우

- 1) 자기 종교의 교주나 창설자나 지도자를 인간 이상으로 신격화 한다.
- 2) 창시자나 교주의 탄생이 보통 인간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 3) 그의 능력이 보통 인간과 다르다.
- 4) 그는 죄가 없거나 죄에 오염되지 않았다.
- 5) 교주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거나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 6) 그가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 7) 그는 예수와 같은 구세주이거나 재림 예수이다.
- 8)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권세가 있다.

8. 비성경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경우

- 1) 지상천국을 주장한다.
- 2) 최후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부인한다.
- 3) 죽은 후에도 회개하거나, 죄를 용서받거나,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고 주장한다.
- 4)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를 예언하는 경우.

5) 인간의 영혼이 아주 없어진다고 주장하거나(영혼멸절설), 천국과 지옥의 실재적 장소성을 부인한다(즉 비유나 우화, 신화, 혹은 상징화 해버리는 것).

6) 결국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만인구원론).

9. 우상숭배와 미신의 경우

1)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숭배한다.

2) 신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복을 빌거나 맹세하는 행위.

3) 주문을 외우거나 부적을 만들거나 염주알을 굴리거나 비성경적 귀신을 쫓는 의식.

4) 죽은 자에게 분향하거나 절하는 행위.

5)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거나 그 산소에 절하는 행위.

6) 점을 치거나, 택일 하거나, 시주팔자를 보거나, 궁합을 보거나, 운명감정을 하거나, 고사를 지내는 행위.

7) 나무, 돌, 짐승 같은 자연이나 어떤 것에 절하거나, 복을 달라거나, 섬기는 행위.

8) 여타의 비성경적이고 비과학적인 우상숭배나 미신행위.

V. 결 언

1. 요약

교회사 전반에 흐르는 정통과 구별되는 이단은 세부적인 주장의 내용은 한결같이 모두 다르고 다양하지만 큰 흐름의 차원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특징적 요소들을 열거할 수 있다.

교리적 차원에서 가장 크게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했다. 이런 이단은 초대기독교에 니케아 공의회(325)를 시작으로 한 기독교 논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이원설을 주장했던 이단들은 어김없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며 가현설(Docetism)에 빠져들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양성론 다음으로 이단에게 가장 표적이 되었던 것은 삼위일체론이다. 모나르키안파를 시작으로 아리우스, 세르베투스, 소시누스주의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했다.

제도적 차원에서 이단은 반체제 분파운동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 무리며 전통 기독교는 배교자, 위선자라고 거부했다. 2세기의 몬타누스파와 3세기 노바티안파, 4세기 도나투스파, 그리고 종교개혁 때에는 재세례파 등이 제도적 교회를 거부했다.

사상적 차원에서 이단은 혼합주의 형태를 취했다. 혼합주의는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섞어 무수히 다양한 이론들을 전개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영지주의의 이원론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의 이단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특징은 전혀 다른 새로운 교리를 새 진리로 내세우고 기존 교회의 교리는 미흡하거나 틀렸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또한 기성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반박하면서 그들 집단만이 유일한 구원의 모임(교회)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교주를 중심으로 한 사이비 이단 운동이 그러한 현상을 나타냈는데 몰

몬교의 스미스, 통일교의 문선명, 안식교의 밀러 등은 자기만이 받은 특별한 계시를 전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은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를 메시아라고 선전하기에 이른다. 이 밖에도 선민사상, 시한부 종말사상, 열광주의 등을 특징으로 할 때가 많이 있었다.

2. 제언

기독교의 교리와 제도들이 계속하여 구체화되고 분명해질지라도 우리는 교회사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단을 근절시키기 어렵다. 이것은 어쩌면 시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하는 이단을 통해서 정통의 진리를 더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섭리일지도 모른다.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을 통해 기독교의 진리가 훼손될 것을 염려했지만 역설적으로 진리는 더욱 명쾌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보았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퇴색시키는 것은 이단들의 무분별한 발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굳게 믿고 있는 진리가 도전 없이 안주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사에 끊임없는 이단의 발생을 묵인하셨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고 이단의 횡포를 보고만 있자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우리 시대의 이단들을 철저히 분쇄하는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시대적 사명이다.

우리는 먼저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눈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사회적 혼란기에 우후죽순으로 발생했던 이단들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이론이 사람들의 마음에 무분별한 안정을 주기 전에 먼저 성경적인 구체적 답안을 사람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혼란의 시기일수록 믿는 바를 더욱 분명히 하고 정통신앙을 견고케 하는 일이 필수적이

며 진리에 입각하여 진위를 가리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또한 교회는 늘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실제적인 삶의 고민과 신앙의 문제들의 현주소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삶의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은 곧 바로 이단의 오류로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필자는 근래 들어 이단들이나 기독교 유사 집단이 가가호호 방문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현장을 많이 보았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설마 설득 당할까 하지만 실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성도도 흔들리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단이나 유사 기독교에 대처하는 끊임없는 교리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지금까지 정통교회에서 신앙 고백적 교리 연구나 이단에 대처하는 교육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단의 바람이 불면 이리 쏠리고 저리 흔들리는 현상을 수없이 보아왔다. 하나의 예를 들면 '다미선교회'가 주장한 시한부 종말론과 불발된 휴거론에 개인과 사회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고 부작용을 낳았는가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견고한 골조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 튼튼하듯이 우리는 성도의 신앙에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분명히 하는 교육에도, 또 성도로서 실제적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단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시급한 문제는 초 교파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일이다. 이단에 대한 정보 교환이라든지, 이단을 반박하는 공동의 선언이라든지, 이단 대처에 공동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이단 사상(참고 자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종교」에 30여 년간 게재된 이단 종파의 목차

강림휴거교회	뉴에이지
다윗파	단학선원
대방주교회	대북기도원
대성교회(평강제일교회)	강북제일교회
광주삼성제단	국제창가학회
국제크리스찬연합	기독교복음침례회
대성심기도원	대순진리회
대한수도원	대한예수교침례회
대한예수교침례회 서울중앙교회	라마교
라엘리안 무브먼트	라즈니쉬교
레마선교회	마라나타선교교회
만민중앙교회	말씀보존학회
명인교회	목단교
몰단교	미국엠마오선교교회
밤빌리아교회	백백교
백색의 형제들	베뢰아아카데미
변화산교회	부산제일교회
부활의교회	불꽃중앙교회
빈야드	사자교회
산해원부활의교회	새노래선교회
새생활영성훈련원	새하늘교회
셋별남원교회	생령교회
서울그리스도의교회	서울중앙교회
서초제일교회	성령쇄신봉사회
성화교회	세계복음화 다락방전도협회
세계종말선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섹스교	승광교회
시온교회	시온산
시온성교회	시흥은행중앙교회
신천지교회	실로(새빛)등대중앙교회
C. O. C선교회	아가동산
에덴문화연구원	엘리아복음선교원

여호와새일교회
 영생교승리제단
 움진리교
 이삭교회
 일성교회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
 주현교부
 지구촌선교회
 진천상산교회
 천국복음전도회
 천리교
 천생교
 충절교회(충절병원기도원)
 태양의 사원
 하나님 인장교회
 한국예루살렘교회
 한님교
 해성교회
 혜성교회
 휴거관련기사

여호와와의증인
 예루살렘교회
 용광로교회(영복기도원)
 인천온누리교회
 일연정종
 종말복음연구회
 중앙예루살렘심정교회
 지방교회
 참하나님의교회(감람원)
 천국중앙교회
 천부교(전도관)
 천존회(천도선법)
 칠사도교회
 하나님의 교회
 한국기독교에덴성회
 한국중앙교회
 할렐루야기도원
 형제교회
 휴거선교회

* 출처 : 이단자료 정보실 <http://cafe.daum.net/cninfo>

한국감리교회의 이단대책에 관한 역사적 고찰

박 봉 배 목사

전 감신대, 목원대 총장
미 밴드빌트 대학원 철학박사

서 언

이 글은 감리교회의 이단에 대한 대책문제를 감리교회의 신학적인 맥을 역사적으로 검토해보면서 이를 토대로 하여 한국 감리교회가 역사적으로 이단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 왔는가를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부는 웨슬리부터 시작하여 감리교회 신학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를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 감리교회가 미국으로 선교되어 발전하는 과정에서 웨슬리의 성서적 복음주의에서 인격주의적 자유주의 신학으로 발전되어온 과정을 1790년에서 1930년 까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1885년 한국에 감리교회가 선교된 이후 한국적 상황에서 감리교회의 신학적 맥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감리교회의 신학적 맥을 기초로 하여 한국 감리교회가 이단문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어떻게 대처하여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검토해 보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우선 한국 감리교회가 어떻

게 총회 산하에 이단대책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단대책위원회를 조직하게 된 경위와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97년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총회 산하에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를 두어 교단의 신학 교육 정책과 이단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발의되어 동년 10월 입법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었다. 처음에는 신학정책위원회를 두도록 발의되었으나 김홍도 감독회장의 제안에 따라 이단대책 문제를 추가하여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로 보완되어 통과되었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두 분과로 나누어 신학정책 분과 위원회와 이단대책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교리와 장정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르면 제3편 조직과 행정편 제6절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 제하에 제145조(특별위원회의 설치)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1.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들의 일관성 있는 신학교육 정책과 재정적 지원문제 그리고 이단사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2.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는 연회 감독들과 연회감독이 각각 추천하는 교역자 또는 평신도 1명, 3개 신학대학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교육국 총무, 자문위원으로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신학자 3명으로 구성한다.

3.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의 규정은 따로 정한다.

그러나 이단대책위원회가 조직된 이후 실제로 취급한 문제는 1998년 다락방전도회 문제를 다루어 1998년 총회에 보고한 것이 그 활동의 전부이다.

제1장 역사적으로 본 감리교 신학의 맥

1. 웨슬리와 미국 감리교회의 신학적 발전과정

웨슬리의 신학적 입장은 감리교회의 핵심적 교리를 견지하면서도 그 태도면에서는 대단히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입장이었다. 그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웨슬리는 그의 설교집 안의 ‘the catholic spirit(보편적 정신)’이라는 설교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들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의심할 바도 없이 우리는 그럴 수가 있다.

May we not of one heart, though we are not of one opinion? Without all doubt, we may.²¹⁾

이 설교문에서 웨슬리는 열왕기하 10장 15절을 인용하면서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맞으면서 한 말을 인용하고 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Is thine heart right, as my heart is with thy heart?) 하고 물

었을 때에 여호나답이 “It is. If it be, give me thine hand.” 즉 그러하나다. 가로되 그리하면 나와 손을 잡읍시다.²²⁾

21) Rev. John Wesley, A.M. Sermons on Several Occasions (London: the Epworth Press, 1944) p. 444.

21) Ibid.

웨슬리는 이 말을 아주 중요하게 인용하면서 감리교회의 보편적이고 개방적인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웨슬리의 핵심적인 교리와 그의 복음적인 입장은 분명하고 때로는 대단히 강경한 것이었다. 특히 예 정론에 대한 그의 입장은 한치의 양보도 없으리만큼 강경하였다.

Robeert E. Chiles는 웨슬리의 보편정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웨슬리의 보편정신과 그의 기독교의 경험적인 면에서의 강조가 후기 감리교로 하여금 신학을 이차적인 것으로 격하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평가절하는 웨슬리의 의도와 그의 실천적인 면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²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의 보편 정신의 입장에서 보면 웨슬리는 감 리교회의 핵심적인 교리를 제외하고서는 대단히 개방적이고 관용적이 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후기 감리교회로 하여금 신학적인 면에 서의 개방성과 이단 문제에 대해 느슨한 입장을 취하게 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감리교회가 미국에 전해지면서 본래의 복음주의적인 입장이 많이 변하게 되는데 1930년대에 가서는 Boston을 중심한 자유주의 신 학이 주류를 이루어 신학적으로 대단히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 다. 이러한 신학적 변천에 대해 앞서 언급한 Robert E. Chiles가 저술한 Theological Transition on American Methodism: 1790-1935²⁴)에 보면 어떻게 미국의 감리교 신학이 변천해 왔는가를 시기적으로 자세히

23) Robert E. Chiles, Theological Transition in American Methodism: 1790-1935 (Nashvikke: Abingdon Press, 1965) p. 23.

24) Ibid., pp. 38-75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그는 미국의 감리교 신학의 변천을 3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제1기는 1780-1840년으로서 영국 감리교회의 영향을 받은 미국 감리교회가 미국적 상황에서 어떻게 변천하기 시작하였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영국에 있어서는 웨슬리 당시 동생 Charles나 Fletcher 등의 도움이 있었으나 점점 Butler의 합리주의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제 자유, 평등, 책임 등을 중시하는 미국적 상황에서 엄격한 교리보다는 실제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복음주의적 실용주의로 나가게 된 것은 시대적인 조류이었다는 것이다. 칼빈주의를 반대하고 구원에 있어서의 인간의 책임있는 동참을 주장하는 소위 복음주의 협동설(synergism)과 은혜에 대한 주체적 경험 등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2기는 1840-1890년으로서 미국 감리교회가 남북 감리교회로 분열되고 진화적 과학이 도전해 오는 변천기에 속한다. 점점 개방적 성격을 띠게 되는 이 시기에서는 Coleridge, Schleiermacher, Bushnell, Maurice 등의 영향이 강해진다. 다윈의 진화론을 비롯하여 성서비판이 대두되고 미국의 철학적 영향이 증대되었다. 자유와 책임에 근거한 상식적 철학의 대두와 함께 도덕적인 강조가 나타나며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고 성서적 계시를 철학적 통찰력에 종속시키고, 원죄개념을 재해석하는 등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 보수파의 강한 반발이 일어나 감독들이 이에 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시대적 조류를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감리교의 전통과 새로운 사상적 조류의 통합을 이루느냐가 신학적 과제가 되었다.

제3기는 1890-1935년 사이가 된다. 이 시기에는 웨슬리에 관한 인물이 점점 감퇴하고 만일 인용하는 경우에는 시정이 요청되는 경우에만 제한되었다고 한다. Rischl, Lotz, Schleiermacher 등의 영향이 더욱 커지고 과학의 발달과 진화론적 우주론의 영향이 강해지며 성서비평학이

크게 대두된다. 전통을 아주 포기하느냐, 봉건주의적인 입장에 서느냐, 아니면 두 가지를 절충하느냐에 있어서 절충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종교의 역사적인 연구, 종교적 전통의 서술적 비교론 등이 대두한다. 성서비평학이 보급됨에 따라 성서의 권위가 상대화되고 성서도 역사적으로 제한받는 책으로 낙착되었고 반면에 도덕화가 강력히 대두하게 된다. 사회복음 운동이 대두된 것도 이런 여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신학적 경향이 감리교의 자유주의 신학을 정립하여 보스턴 대학을 중심한 기독교 인격주의(personalism)를 형성하게 하였다. 그 중심 인물로는 B. P. Brown, Brightman, Knudson 등이고 그 뒤를 이은 2세대 신학자들이 Muelder, Bertocci, Dewolf 등이다. 이 인격주의는 인간의 인격 또는 주체가 인식론이나 형이상학에서 궁극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여기며 주체와 객체 사이의 결합을 통해 지식이 형성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과학과 종교, 이상주의와 경험주의 사이의 중재를 시도하며 절대적 입증이 아니라 개연성을 추구하는 종합적 방법론을 취한다.

이렇게 하여 제1기의 웨슬리적 복음주의가 제2기에 가서는 자유주의적 복음주의가 되었다가 제3기에 가서는 복음적 자유주의로 변천해 나갔다는 것이 Chiles의 견해이다. 이러한 미국감리교 신학의 발전과정은 계시에서 이성으로, 죄인인 인간에서 도덕적 인간으로, 자유로운 은총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로 변천해 갔다는 것이다.

근래에 와서 G. Cell이 웨슬리의 재발전을 주장했고 W.Cannon이 웨슬리의 신학을, Lindstrom이 웨슬리의 성화론을 출판하였다. 그리고 Hildebrndtrk 「루터에서 웨슬리」를, 그리고 Pennington이 「부루너와 웨슬리의 비교연구를 내놓았다. 실존주의적인 입장에서 C. Williams가 「오늘의 웨슬리 신학」을 저술하였고 W.M.C. 산하의 Oxford Institute에서 5년마다 연구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 감리교 신학은 웨슬리를 그 뿌리로 하여 시대의 흐름을 따라 성장 발전하여온 “형성 중에

있는 신학”(theology in the form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 감리교 신학의 발전과정

이러한 신학적 유산을 배경으로 하여 한국 감리교회의 신학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미국의 초대 선교사로 내한한 H.G. Appenzeller(1858-1902)는 신학자는 아니었으나 웨슬리적 전통에서의 복음주의를 기초로 한 총체적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선교를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는 분명한 신앙적 경험의 소유자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 구원의 능력, 부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복음주의적 신앙의 소유자이었다. Appenzeller의 한국말 선생으로 기독교와 접촉하게 된 최병헌(1858-1927) 목사는 유학자로서 토착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연구한 한국의 첫 신학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윤성범, 변선환 교수 등은 그를 종합주의자라고 하지만 그의 유명한 「聖山明鏡」을 살펴보면 그는 분명히 기독교의 변혁주의적 입장에 섰던 사람이었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어찌하면 성신의 능력을 얻어 유교와 선교와 불교 중 고명한 선비들에게 전도하여 믿는 무리를 많이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²⁵⁾

한국적 입장에서 오늘의 해방신학을 무색케 하리만큼 당시의 기독교를 민족해방과 주권회복운동으로 해석한 사람이 전덕기 목사(1876-1917)이다. “하나님 사랑이 곧 민족 사랑이요 의를 위해 핍박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주장 아래 철저한 기독교적 민족주의자이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국 엽월청년회를 소집하여 Scranton 선교사의 질책을

25) 崔炳憲 著, 聖山明鏡

받았으나 애국운동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하여 고집을 꺾지 않은 사람이었다. 을사조약 때에는 평양장사 수십명을 모집하여 매국노들을 암살하려고까지 한 한국의 본회퍼이었다. 민중들과 함께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는 민중의 목회자이었다.

1930년대를 전후하여 사랑의 신비주의를 내세워 심령부흥운동의 꽃을 피우게 한 사람이 이용도 목사(1900-1933)이다. 왜정이 식민지주의를 굳혀가던 그 때에 기독교인들의 울분을 신비주의적 부흥운동으로 결집시켰던 한국 부흥운동의 당시의 3대 거물이기도 하다. 왜정의 탄압이 강해지고 교회가 침체상태에 빠져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돌출구를 차지 못하고 있을 때에 타계적인 금욕주의, 신비주의 운동을 통하여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의 청춘을 불사른 사람이 이용도 목사이었다. 폐병 3기에 있으면서도 죽는 그 순간까지 눈물과 열정으로 복음 전하다가 33세의 젊은 나이로 죽은 아까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한국 감리교의 신앙적 전통은 최병헌의 토착화 신학, 전덕기의 민중신학, 이용도의 신비주의적 성령 운동이 역사적으로 그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학적인 면에서의 감리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정경옥(1903-1945) 교수이다. 1932년에 감리교 신학교수로 부임한 정경옥 목사는 감리교회의 신학적 해성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용도 목사와 동시대의 인물인데도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접촉이 없었던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은 정경옥 목사가 이용도 목사의 신비주의 운동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입증된다. 정경옥 교수는 서구신학의 소개와 도입에 중점을 두었고 토착화 신학에는 큰 관심을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의 신학공부는 1927년에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가 1929년 Garrett신학교를, 그리고 1931년에 Northwestern을 졸업하였다. 당시 미국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지배적이었기에 정경옥 교수도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것

이 사실이다. 그는 자기의 신학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신앙에 있어서 보수주의요 신학에 있어서 자유주의 입장을 취한다. 신학을 구태여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나더러 그 중에서 꼭 한 가지만 내 것으로 택하라고 하는 군색한 질문을 한다면 나는 슈라이엘막헬이나 으트셀(리칠)이나 발트를 주저할 것 없이 취하였으리라고 생각하는 바 복음주의적 입장에 선 계시신학을 택할 것이다.²⁶⁾

이러한 주장은 모순되는 입장이나 그의 솔직한 심정이었던 것 같다. 어쨌든 Schleiermacher나 Ritchl을 택한 것을 보면 그는 분명히 자유주의 신학의 입장에 서게 되는데 여기에 Barth를 아무런 거부반응 없이 택한 것을 보면 신학적으로 종합주의적 입장이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한다. 좀더 추론을 한다면 1930년 당시 혜성처럼 나타난 Barth에 매력을 느껴 그의 신학에 관심을 갖고 신전통주의로 전향하려던 때에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한국 감리교 신학의 토대를 자유주의 신학에 뿌리 내리게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의 뒤를 이어 유형기 감독이 Boston에서 신학을 공부하여 감리교 신학의 자유주의적 전통을 이어갔고 이런 전통은 윤성범 박사와 유동식 교수, 변선환 교수로 이어지게 된다. 윤성범 교수는 한국 토착화신학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분으로 유교적 입장에서 기독교를 풀이하려고 한 분이다. 그의 「誠의 神學」이나 「孝의 倫理」는 과감한 토착화 신학의 시도이다. 유동식 교수는 한국의 무교를 연구하여 한국 기독교 신학을

26) 鄭景玉 著, 基督教 神學概論 (서울: 監理教會 神學校, 1939) p.4.

무교적 입장에서 토착화하려고 시도하였고 변선훈 교수는 불교적 인장에서 기독교를 토착화시키려 하였는데 세 분 교수 가운데서는 가장 강력한 토착화 신학의 주창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분 교수들은 종교적 다원주의를 기초로 하여 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 토착화를 시도했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신학자들과 비교해 볼 때 홍현설 박사의 신학적 공헌은 어느 누구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큰 것이었다. 정경옥 교수나 근래의 서남동 교수와도 비교되지 않으리만큼 현대 신학의 사조를 신속하게 소개하고 해석해 주는 분이였다. 그러나 그분의 신학은 다원주의적이거나 상대주의적인 입장이 아니고 감리교 신학의 전통을 이어가는 복음주의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1930년에 제정된 감리교회의 교리적 선언에 대한 그의 평가를 보면 그 분의 신학적 입장이 어떤 것이냐를 분명히 알 수 있다.²⁷⁾ 홍현설 학장은 감리교의 교리적 선언이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인 입장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의 감리교회의 신학적 전통이 자유주의에서 온 것은 사실이다. 신학자 가운데 보수주의적인 입장에 섰던 분이 변홍규 감독이고 극단적인 보수주의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웨슬리적 복음주의를 견지하려고 한 분은 홍현설 박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목회자들은 지나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있다는 사실이 신학교육과 현장 목회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들의 앞으로의 과제는 웨슬리적인 전통에서서 오늘의 현대사회에 어떻게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고 선교할 수 있을 것인가의 입장에서 신학과 목회현장을 연결시키거나 목회현장을 기초로 하고 신학교육을 재검토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감리교회의 신학

27) 청암 홍현설저작 전집 (서울: 성서연구사, 1997) pp. 680-760.

적 정통의 확립은 오늘의 이단문제에 대한 올바른 길잡이가 될 것이다.

제2장 역사적으로 본 한국감리교회의 이단 대책

지금까지 논의한 한국 감리교의 신학적 맥을 염두에 두고 역사적으로 한국 감리교회가 이단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과 대책을 취하여 왔는지를 고찰하기로 한다.

1. 이용도 목사의 금욕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부흥운동의 여파

한국 감리교회에서 이단 문제가 논의된 것은 아마도 이용도 목사의 경우가 그 첫째이라 생각된다. 이용도 목사(1900-1933)는 감리교신학교를 졸업하고 28세 때부터 교역을 시작하였다. 30세에 이미 폐병 3기에 있었던 그는 자기의 남은 3년 동안을 정말 자신을 불태워 버리는 열정으로 부흥회를 인도하였다. 그는 신앙의 3단계, 1. 교회시대, 2. 수도시대, 3. 신앙시대를 말하여 특히 교회시대에 관하여 기성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교회에 있는 것은 말질, 시기, 분쟁, 불평, 근심, 분열, 이기심” 등이라고 하면서 “예수는 죽이고 그 옷만 나누는 현대교회이고 예수 피는 버리고 그 형식만 취하는 교회” 라고 하였다.²⁸⁾

수도원주의를 능가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신비주의를 주장하였으며 동양적인 종교적 배경을 반영하는 토착화 신앙의 주창자이기도 했

28) 변종호편, 이용도목사의 일기 (서울: 신생관, 1965) pp. 13-14.

다. 그의 신앙은 당시의 기성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이단적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사게 하였고 지나친 기성교회에 대한 그의 비판은 기성교회 지도자들의 반감을 강하게 유발한 것 같다. 특히 그의 부흥회가 개체교회에 물의를 일으켜 교회 내에 분열을 가져오게 하기도 하였고 그의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과의 교류 등이 문제가 되어 결국 이단이라는 낙인을 받게 된다. 1931년 장로교의 황해노회는 이용도 목사에게 금족령을 내렸고 1932년 평양에서는 임시노회에서 이용도 목사를 감리교회 경성지방에 조회할 것을 결의하였고 당시 기독교보는 이용도 목사일파를 “이세베의 무리”라고 매도하였다.²⁹⁾ 그리하여 결국 감리교 중부연회는 1933년 이용도 목사에게 휴직처분을 내리고 말았다. 이에 이용도 목사 일파는 이용도 목사가 휴직처분 된지 3개월 후인 1933년 6월 6일 평양에서 116명이 모여 예수교회를 창립하게 된다.³⁰⁾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넘어서서 단순히 신학적인 면에서 검토한다면 이용도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하기에는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1980년대에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들이 이용도 목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그의 신학사상에는 이단적인 요소가 거의 없다는 데 합의하였다. 문제는 그의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 즉 유명화, 한준명 등의 사건으로 많은 오해를 받게 되었으나 죽음을 앞둔 이용도 목사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비호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런 저런 점들을 고려하여 1999년 서울 연회에서는 이용도 목사의 휴직처분을 철회하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

29) 유동식 저, 한국감리교회의 역사 II, 1884-1992 (서울: 기독교 대한 감리회, 1994) p. 613.

30) Ibid., p. 614.

2. 통일교에 대한 이단대책 문제

근래에 와서 이단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 되고 감리교회에서 강력한 태도를 취한 것은 통일교에 관련된 감리교회 교역자와 평신도에 대한 이단차별이었다. 감리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교단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이 사실이다. 감리교회는 1981년 4월 특별총회에서 통일교에 관련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이단 종파 관련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조치법 제1조에 보면 그 목적이 “이단 종파의 관련 교인과 교직자를 일괄 소급 조사하여 조사처리하되 징계보다는 교단의 명예 회복과 피해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제2조에는 “교인 및 교직자로서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였거나 금전을 수수한 자, 그리고 그 종단의 재정지원으로 각종 집회나 외국 시찰 및 국제회의에 참가한 자는 본 법에 의거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오경린 감독이 위원장이 되어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해 처벌 당한 통일교 관련자들은 목사 6명, 장로 8명 등이었다. 대체로 처벌은 교회회원권 정지 1년이었으나 김순경 목사는 출교, 이주학 목사는 교직 정지 1년, 유내창 목사는 교직 정지 2개월의 중벌이었다.³¹⁾

3. 변선환 교수의 다원주의에 대한 이단시비문제

1982년 6월 26일 현대사회연구소가 주최한 불교와 기독교와의 대화 모임에서 주제강연을 한 변선환 교수의 강연내용이 문제가 되어 변 교수에 대한 이단시비가 감리교 부흥단에 의해 제기되었다. 부흥단은 변

31) Ibid., p. 995.

교수가 사도신경과 감리교회의 교리적 선언을 부인하였다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다. 당시 감독회장이었던 오경린 감독은 이 문제에 대해 미숙한 표현에서 오는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 변 교수로 하여금 해명서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그 해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지난 6월 현대사회연구소가 공개하였던 불교와 기독교대화 모임에서 한 주제강연이 교회의 선교현장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듣고, 감독님들의 권면에 의해서 두 번 해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대회모임에서 한 본인의 강연이 본의 아니게 교회선교에 큰 손상을 주고 있다고 들으며, 본인은 일선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크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타 종교와의 입장은

1. 한국의 인간화를 위하여 기독교는 3.1운동 당시처럼 타 종교와 저의 없이 대화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는 극히 실천적인 도의적 요청에 응하려는 것이었고,

2. 오늘날 세계신학자들이, 특히 제3세계 신학자들이 씨름하고 있는 기독교의 탈서구화의 과제를 유불선 세 종교가 다원적으로 기독교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한국의 종교적 사회적 상황에 적응시켜서 한국적 신학을 형성하려는 시도였으며,

3. 선행은총과 속죄의 보편성을 종교개혁 원리와 함께 주장하는 웨슬리 신학에 근거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자는 언제나 자기 교파의 신학적 전통의 빛에서 급변하는 정치적 종교적 상황에 대하여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새롭게 재해석하며 새로운 신학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문제의 새 신학은 표현방식이 다소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그리스도 케리구마

자체를 부정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화 없는 선교는 맹목이고 선교 없는 대화는 공허합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Solus Christus(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나는 성령과 하나의 거룩한 교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1982년 9월 28일

변선훈³²⁾

이 사건이 있는 후 10년이 되던 1991년에 변선훈 교수의 다원주의가 다시 이단 시비의 논란이 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 11월 24일 카톨릭문화원 주최의 “기독교, 불교, 천주교 대화 모임”에서 변선훈 교수가 “불타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였는데 그 내용이 12월 8일자 「크리스찬 신문」에 발표되었다. 1991년 3월 18일에 열린 서울 남연회에서 변선훈 교수의 강연 내용을 가지고 이단적 요소가 있다고 하여 박기창, 이성국, 김순태, 정동광 등 4명의 이름으로 건의안이 본 회의에서 상정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건의안에서 변선훈 교수가 주장하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신학적 모색에서 변 교수가 주장하는 “요단강 중심의 유대문화에서부터 다원주의를 상징하는 태평양 한강 중심의 신학이 제발되어야 한다.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해야 한다. 기독교 밖에 구원이 없다는 교리는 신학적 천동설에 불과하다. 종교는 이름의 기독교이다. 예수를 절대화 우상화시켜 다른 종교적 인물을 능가하는 일종의 제의 인물로 보려는 기독교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등의 조항을 들어 이를 규탄하였고 서울 남연회의 결의로 이 문제를 총회실행위

32) Ibid., pp. 96-97.

원회에서 신학심의회를 두어 심의할 것을 건의하게 된다. 그러던 중에 「크리스찬 신문」은 또 다시 3월 30일자 신문에서 이번에는 감신대의 홍정수 교수의 “부활 메시지를 다시 조명한다”는 글의 내용을 게재하였다. 홍 교수의 주장은 과학의 지배에서 벗어나 종교언어로서의 새 분야를 개척하려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논의하면서 부활 신앙을 재해석하려고 하였다. 생물학적 입장에서 말한다면 예수의 피나 동물의 피나 다를 것이 없다는 홍 교수의 좀 지나친 비유와 생물학적인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 하여 이단적이라고 규탄한 것이다.³³⁾

이 두 교수에 대한 심의건의안이 드디어 1991년 10월 29일에 개최된 제19회 총회 특별 총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종교적 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은 감리교 신앙과 위배된다는 것과 이와 같은 신학을 주장하여 감리교 선교에 지장을 준 두 교수에 대해 위법조치 할 것을 김홍도 목사의 동의와 박기창 목사의 재청으로 가결하게 된다. 동시에 감리교 신학대학 이사회에 두 교수를 면직하도록 하는 총회 결의를 통보하고, 해당 연회 감독은 이들을 심사위원회에 회부케 하자는 리승수 목사의 동의와 임택순 장로의 재청으로 찬성 299, 반대 2로 가결되었다.³⁴⁾ 특별 총회의 등록회원 수 1,385명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의 결의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의 마무리 단계에서 1992년 5월 7일 금란교회에서 열린 서울연회 재판위원회는 제19회 특별총회 건의 및 김홍도 목사와 유상열 장로의 이단 사상과 통일교 인물과 관련된 고소 사건을 심의하여 변선훈, 홍정수 두 교수에게 출교판결을 내렸다.

두 교수의 주장들이 좀 지나친 면이 있고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종교

33) Ibid., p. 998.

34) Ibid., pp. 998-999

에도 구원이 있기에 기독교로의 개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나 하나님을 중시하여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위성들과 같다는 비유,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에 대한 지나친 비유 등은 보수적인 목회자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어쨌든 20세기에 종교재판으로 출교(excommunication)를 감행했다고 몇 신문들이 감리교회에 대해 비판을 하였고 신학대학 학장이었던 변선환 교수를 출교시킴으로 인해 그 밑에서 교육을 받아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있는 많은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반문이 나오기도 하였다. 감신대 교수들과 그를 아끼던 사람들이 성명서를 내었고 5월 28일에는 아현 감리교회에서 500여명이 모여 감리교를 염려하는 기도모임을 발족하여 이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내기도 하였다.

4. 류광수의 다락방 운동에 대한 이단 시비

총회 산하에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 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이단 문제에 대해 교단적인 대책을 강구한 것은 류광수의 다락방 운동에 대한 교단적 입장의 천명과 이에 동조하는 교역자나 평신도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었다. 1998년 인천 송의교회에서 모인 제23회 총회에서 다락방전도회에 대해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에서 “류광수의 다락방 운동은 감리교 교리에 위배됨으로 이단으로 결정되었다.”는 요지로 보고한 것을 회원 모두의 찬동으로 결의하였다.³⁵⁾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 위원회가 위촉하여 검토한 다락방 운동의 이단성은 다음과 같다.

35)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23회 총회 회의록 (서울 기독교대한 감리회, 1998), P. 160.

1. 교회론에 있어 교회의 속성을 규정하는 네 개의 고전적 표지인 일치성(unity), 거룩성(holiness), 사도성(apostolicity), 보편성(catholicity)의 교리적 기준에서 볼 때, 지방교회는 교회의 정의, 기능 그리고 교회 전승에 대한 요소가 없다. 개신교적 교회관은 말씀과 성례전을 올바로 수행하는 교회이다.

류광수의 다락방 운동은 워치만 리와 그의 동역자의 지방교회 이론을 활용하고 있다. 이 운동을 주장하는 교회의 성격은 보편성(catholicity)을 상실하여 다락방만이 유일한 참 교회라 주장하며 기존 교회의 조직, 제도, 사업 등을 무시한다.

2. 성령론에 있어 윌트니스 리의 영적인 인간의 이해에 따라 성령이 인간과 연합하는 신인합일주의(神人合一主意)를 가르치고 있다. 이 신비주의적 경향은 신과 인간의 존재론적 합일을 주장하는 범신론적 신비주의를 말한다. 이는 전통적 기독교가 주장하는 사랑의 신비주의적인 기독교적 영교가 아니라 신과 인간의 영합을 말하는 위험성이 있다.

3. 기독교론에 있어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으로 변화되었다는 성육신을 주장함으로 양자론적(제2차 세계공의회에서 이단으로 확정)이다. 또 성령과 연결되어 그리스도를 “누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섞여지는 것으로 윌트니스 리의 신학에 근거한 범신론적 이론이다.

4. 천사동원권을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으로 설명하는 다락방 운동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靈)인 천사를 인간이 부릴 수 있는 천사동원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5. 인간론에 있어 육신과 죄와 사탄이 일체라는 개념을 말함으로 이는 육신이 곧 사탄이며 죄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죄와 사탄의 일체의 개념은 비성서적이다. 성서는 죄와 사탄의 일체개념을 언급

하지 않고 있다. 죄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태도와 행동들이다(롬 3:23, 4:15, 7:7-25). 사탄은 성서적으로 볼 때 ‘시험하는 자’라는 영적인 세력을 말한다.

6. 마귀론에 있어 마귀(귀신)를 하나님과 대적하는 인격적 대동자로 인식함으로 이원론적 견해를 따르고 있다.

7. 사탄 결박권에서 죄와 사탄을 하나로 주장함으로 기독교를 사탄 진멸권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구원론을 사탄중심적 투쟁으로 왜곡하고 있다.

8. 재영접설은 구원 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고 하는 이론이다.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을 분리하여 주장하는 것은 비성서적이며 비논리적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동시적이다.

9. 사탄배상설과 반(半)구원론 등으로 주장되는 다락방 운동은 구원론에 있어서 신학적 오류가 있다. 사탄배상설은 오리겐의 주장으로, 이미 교리적으로 이단사상으로 정죄(콘스탄티노플 제3차 공의회)받은 사상이며, 반(半)구원론은 구원 받은 사람도 죄를 자꾸 지으면 육체는 멀해 버리고 영혼만 구원 받는다는 해석으로 구원론을 이원론적으로 왜곡하는,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이다.³⁶⁾

이에 근거하여 당시 감독회장이었던 김홍도 감독은 모든 감리교회에 다음과 같은 행동지침을 내렸다. 그 행동지침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류광수 다락방 운동에 대한 감리교회의 이러한 결정은 감리교회가 이단 문제의 대해를 처음으로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 위원회로 하여금 연구 검토하게 하여 교단적인 대책을 분명하게 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역사

36) 동 회의 자료, pp. 484-486.

적으로 특기할 만한 일이다.

류광수 다락방 운동에 관해

이단적 요소가 발견되었으므로, 감리회 소속 교역자 및 평신도 중에 류광수의 다락방 운동에 관계된 이들은 즉시 그 관계를 끊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제23회 총회(1998. 10.28-30, 인천 송의교회)결의에 따라 처리한다.³⁷⁾

이 문제에 대해 감리교회는 경고를 내렸을 뿐 개인적으로 어느 누구를 처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이후에 감리교회 내에서 류광수의 다락방 운동이 거의 사라지게 된 것이 사실이다. 류광수의 다락방 운동에 대한 감리교회의 이러한 결정은 감리교회가 이단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 위원회로 하여금 신학적으로 연구 검토하게 하여 교단적인 대책을 분명하게 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특기할 만한 일이다.

5. 박익수 교수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단시비 문제

박익수 교수에 대한 이단 시비는 2001년 9월에 김홍겸, 이택선, 정상옥 장로 3인의 고소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이들은 박익수 교수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선재성, 그리고 삼위일체론을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도 부인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연회에 제출하였다. 서울연회는 이를 심사 1반에 배정하여 심사하게 하였고 심사위원회는 이를 불기

37) Ibid., p. 147.

소 처분하였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런 가운데 2002년 4월 종교교회에서 개최된 서울 연회 제2차 회집시 김홍도 감독이 감신대 박익수 교수의 논문에 이단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 김홍겸 장로, 이태선 장로, 정상옥 장로가 공동 명의로 서울 연회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문제가 심각함으로 서울 연회에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하게 하자는 긴급동의를 하게 된다. 서울 연회는 이 긴급 동의안을 의결하여 조사위원회를 조직하게 된다. 배동운 감독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춘화 감독, 조영준 목사, 조영민 목사, 박종천 교수, 고주석 장로, 오현봉 장로, 인종원 장로, 그리고 김정태 장로가 조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우선 당 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결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연회 이단 문제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1. 사건:

제22회(2002.04.02-03) 제2차 회집시 김홍도 감독의 긴급동의가 가납되어 “이단문제 조사위원회” 설치 결의

2. 피고소인:

감신대 박익수 교수(목사)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31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목사)

3. 조사취지:

박익수 목사에 대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이단사상과 신학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한다.

예수의 선재성을 부인한다.

예수의 구속도 부활도 부인한다.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한다.

4. 결정

박익수 교수(목사)에 대한 조사는 이를 기소유예하기로 결정하다.

5. 이유

박익수 교수(목사)

- 1) 박익수 교수의 글과 강연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소인을 2차에 걸쳐 심문조사한 바, 별첨과 같이 본인의 사과문이 접수되었고,
- 2) 감신교수단의 “한국 감리교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드리는 글”이 접수되었음.(이단문제와 관계된 글과 강연에 대해 사과)
- 3) 박익수 교수가 지켜야할 조건
- 4) 2002년 10월 총회 전까지 반론적인 논문을 제출하겠다는 각서 제출.(2002.05.13일자)

2002년 5월 13일

이단문제 조사위원회³⁸⁾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이단문제 조사위원회는 9차에 걸친 회의를 소집하였으며 본인의 해명과 사과문 발표, 두 신학자의 신학적 참고의견 등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이 문제를 취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우선 고소자들에 대한 박익수 교수의 해명서를 보면,

“고소인들의 주장에 대한 답변”이라는 해명서에서 박익수 교수는 “먼저 저의 말과 글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연회에서 논란이 일고, 결국은 이단문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를 받게 되어 여러 위원들의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사과를 한 다음 자기의 신학적 관심사가 역사적 “예수와 가장 근접한 바울서신들과 그

38) 서울연회 이단문제 조사위원회 조사결정, 2002년 5월 13일.

의 서신들에 반영된 신학적 관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삼위일체론은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그리고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결정은 A.D.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결정된 바” 자기의 관심은 A.D. 51-56대에 기록된 “바울의 서신들의 신학적 관심이 신약성서 안에 있는 후기 문서들에 어떤 변화를 보이며, 또한 후대의 공 교회에 어떤 교리로 발전해 왔는가”를 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신학자들의 출판된 신학 서적을 통해 “이런 저런 신학적 관심이 나타난다는 학자들의 논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7번 언급된 아주 중요한 표현인 “피스투스 투 크리스투를 ‘그리스도의 믿음’,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어느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인가를 연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에 대해 박익수 교수는 “기독교가 예수를 본받자(imitatio Christi, 人性)는 전통과 예수를 믿자(patocopatio Christi, 神性)는 두 전통이 상존해 온 것이 사실인데,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전제 하에 이 두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어떻게 묵회현장에 건설적으로 적용시킬 것인가를 논의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때의 강연장에서나 후에 논문을 발전시킨 것은 전혀 신학적 문제나 교리상의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 강연 후에 본인의 뜻과 달리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과격한 표현들 “끌어 내려라”나 “예수가 되라” 등이 발견되어 그 신문을 즉시 폐기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체 가운데 계셨다”는 말도 “예수님의 인성이라든지, 신성을 논한 것이 아니라…… 성자와 성부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한 적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예수의 선재성을 부인한다는 고발에 대해 빌립보서 2:6-11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찬양시에 대한 언급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다 잘 설명하

기 위한 목적이었지, 그리스도의 선재설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지적하였을 뿐, 이 찬양시가 그리스도의 선재성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언급만 가지고 예수의 선재성을 부인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예수의 부활도 부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10-2:21에는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 예루살렘 회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 등이 논의되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행동,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충성,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 대한 여러 표현들은 발견되지만, 부활의 개념은 나오지 않음”을 말한 것 뿐이라고 해명하면서 자기가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감리교회의 정회원 목사로서 공교회가 제정한 사도신경과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의 교리적 선언의 내용을 늘 반복하여 고백하고 있으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박교수는 “신앙고백과 다른 신학 전개란 있을 수가 없고 자신은 지금껏 신학자와 목사로서의 갈등이나 차이를 인식해 본 적이 없다”고, 신학자가 할 일은 “성경과 교회의 전통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다루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신학적 연구와 논의의 자율성이 학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입각한 것인가를 늘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신학적 이견이나 입장의 차이는 당연히 건설적이고 누구나가 수궁할 만한 신학적 토론을 거쳐서 밝혀지고, 조정되고,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기의 확신이라고 말하고 있다.³⁹⁾

39) 박익수 교수, 고소인들에 주장에 대한 답변, 2002년 4월 26일.

박익수 교수의 이단 시비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논란이 된 것이 “피스투스 투 그리스투”의 개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참고인으로 지적된 목원대의 이선희 교수는 박익수 교수의 “피스투스 투 그리스투” 언급에 대해 박익수 교수가 전형적인 종교개혁적 이신칭의 교리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루터가 이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번역한 이후 400년 간 거의 도전받음 없이 확고한 자리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은 sola fide, 즉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박 교수도 이런 입장에서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박 교수가 “피스투스 투 그리스투”를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 살았던 한 인간 예수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 즉 ‘그리스도의 충성스런 죽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문제는 박 교수가 1996년 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지하고 “예수의 믿음”을 거부해 왔는데 그가 1992년부터 읽고 1996년에 번역 출판한 핸드키쿠스 보어스의 책 『예수는 누구이었는가? - 역사적 예수와 공관복음서』 이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예수의 믿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궁극적 의미는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가 행했듯이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인정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인간 존엄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예수를 확증하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공로”라는 개념은 공허한 것이 되고 인간의 공로를 구원의 근거로 보는 사실이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 결과 예수의 신성과 선재성을 부인하는 결과가 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선희는 박 교수가 ‘피스투스’ 논문에 후속하는 논문을 써서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올바른 관계를 보

다 선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⁴⁰⁾

또 한 사람의 참고인으로 협성대의 김영선 교수가 소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김 교수가 직접 박 교수를 만나 “예수는 결코 신이 아니다. 신은 고통을 당하지도, 죽지도 않으니까요?” “무슨 의도로 예수를 신격화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양자로 삼으셨다” 등의 글을 박 교수가 말하였는지를 물었더니 “그 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언론과 오해한 학생들이 그렇게 말을 만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하였다. 문제는 역시 “피스투스 투 그리스투”에 대한 해석 문제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해석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경향이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서양학자들의 해석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해석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 해석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듯한 표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논문 “피스투스 투그리스투” “그리스도의 믿음인가?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가?”에 나오는 말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진술하고 있어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박 교수의 글이 특정한 구절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박 교수의 표현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닌 양 비쳐지는 면도 없지 않으니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면 이런 오해는 사라질 것으로 믿는다”고 결론짓고 있다.⁴¹⁾

조사위원회는 박 교수의 답변서, 그리고 참고인들의 견해를 신중히 검토하여 박 교수가 사과문과 신앙고백서를 제출할 것과 총회 전까지 자

40) 이선희 교수, 참고인 소견, 2002년 4월 30일.

41) 김영선 교수, 서울연회 이단문제 조사 위원회 참고인 소견, 2002년 4월 30일.

기 논문에 대한 반론적인 논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박 교수를 기소유예하였다.

박 교수의 사과문과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과문

본인이 발표했던 성서해석 논문들이 우리 감리교단 안에 이단시비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등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킨 일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으로서는 학문적 의욕과 열정에만 사로잡혀 성서 본문의 참된 의미를 정확히 밝히려고 힘썼지만, 본인의 생각을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교회 내 여러 분들의 순수한 신앙을 오도하거나 혼선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이 점에 대해 뉘우치고 있으며, 이전 기회를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는 좀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과 아울러 교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연구하며 발표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2002년 5월 6일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박익수⁴²⁾

신앙고백

2002년 1. 8

존경하는 감독회장님!

저는 서울 동지방 미아리 교회(1965-1972)에서 신학생과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연천지방의 은대리교회(1972-1975)와 미국남부

42) 박익수 교수, 이단 시비와 관련한 사과의 말씀, 2002년 5월 6일.

뉴저지연회 체리힐교회(1978-1985)에서 담임 목사직을 10년간 역임하고, 지금은 서울 동대문지방 한샘교회 소속으로 서울연회 정회원목사요 총대요 과정고시위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들 가운데 목회경력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개척해서 세운 미국의 체리힐 제일교회는 현재 500여명이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했으며 금년에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본인에게 감사패도 주었습니다. 저는 교수가 된 이후에는 동대문지방 한샘교회(담임목사 임흥근) 소속 목사로서 담임목사를 도와 절기설교는 물론이고 목사님께서 부탁하실 때마다 설교와 성례전을 도와오고 있습니다. 틈틈이 안수 받지 못한 제자들의 교회를 방문하여 세례예식과 성례전을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축도를 하는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의 정회원 목사로서 신앙상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신경과 교리적 선언의 내용을 늘 반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직을 떠나 학교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긴 사명으로 알고 신학생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지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각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4000여명의 제자들이 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소서.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박익수⁴³⁾

박 교수는 약속한 대로 반론적인 논문을 조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이를 교단 이단대책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한 상태이다. 장광영 감독회장 당시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가 조직되지 않아 이 논문이

43) 박익수 교수, 신앙고백, 2002년 1월 8일.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 안에 이를 검토하여 사건의 끝마무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을 대신하여

감리교회의 이단대책을 역사적으로 검토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단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앞서 말한 대로 웨슬리적 전통은 지나치게 폐쇄적인 입장은 아님을 우선 전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웨슬리가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와 감리교회의 핵심적인 교리는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여도 지켜지고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이단 문제의 가장 심각한 점은 사이비 신흥종교의 문제이다. 사회가 혼란하고 기성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틈을 타서 무식한 대중 속에게 파고들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는 올바른 성서적 신학적 교육을 교인들에게 실시하여 결길로 나가지 않도록 교단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재래 종교와 지나치게 혼합현상을 일으킴으로 나타나는 이단사상의 문제이다. 토착화라는 입장에서는 재래 종교와의 대화나 연결점을 논의할 수 있겠으나 기독교가 이런 재래종교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성서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분명히 하여 무비판적 혼합현상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논의한대로 신학자들 사이에서 나타난 이단시비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할 것은 학문의 자유의 문제이다. 신학도 학문이기에 학문연구의 자유에 교단이 제동을 건다는 것은 웨슬리적 전통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신학자

들이 신학을 연구함에 있어 명심할 것은 신학은 신앙을 기초로 하고 교회를 위해 있다는 사실이다. 자기의 신학적 연구가 교회의 목회와 선교를 위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문이다. 그리고 특히 명심할 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 경향이나 이론을 소개하는 것과 자신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를 명확히 함으로 청중들이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신학자는 기성교회의 잘못된 점에 대해 신학적으로 예언자적인 비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신학적 전통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거나 발전적인 사상을 제안할 수 있다. 때로는 루터와 같이 전적인 개혁을 폭탄 선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소신 있게 나갈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자신의 소명이라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행해야 할 것이다.

이단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점은 그렇다면 감리교회의 핵심적인 교리는 무엇이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적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선 그 첫째는 기독교가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그리고 한국 감리교회의 경우 1997년에 제정된 교리와 장정 제2장 교리에 수록되어 있는 ‘제1절 신앙과 교리의 유산’, ‘제2절 기독교대한감리교회 신학을 위한 지침’, ‘제3절 우리의 신앙고백’ 그리고 ‘제4절 사회신경’이 그 표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1930년에 제정된 감리교회의 교리적 선언, 그리고 1997년 총회에서 제정 공포된 감리회 신앙고백은 한국 감리회의 신앙과 교리적 표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단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종교사회학적 입장에서 -

김영일 목사

협성대 교수

미 로올라 시카고대 학교 철학박사

1. 들어가는 말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는 흔히 그 나라에서 정치적인 혼돈과 사회적인 불안, 도덕적인 해이 그리고 기성교회의 기능상실, 즉 교회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 등의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현상의 결과로 인하여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불안과 허무함을 느끼고 희망을 잃게 될 때 생성된다. 또한 급격한 사회변화가 있을 때,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고개를 드는 경우도 있다. 우리 한국에서 조선 말기의 혼란과 일본의 침략 그리고 6. 25 남북전쟁의 혼란의 틈을 타서 몇 가지의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발생된 것도 그러한 예로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선 진정한 종교 혹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문으로는 이단의 발생원인과 이단의 공통분모를 살펴봄으로써 이단과 사회의 역동적 관계를 고찰하려 한다. 즉, 이단이 사회와 정통적인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종교사회학적인 입장에

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이다.

2. 이단이란 명칭과 정의

“사이비 종교”나 “유사 종교”란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제법 진정한 종교나 교회와 비슷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조직체이며 공인되지 않은 단체이다. 이단이란 전통적이고 공인되어진 교회에서 벗어나고 어긋나서, 한 카리스마 지도자를 중심으로 극단적이고 개인적 신비주의의 요소를 지니며 소규모로 조직되어 운영되다가, 짧은 생명을 갖는 종교적 색채의 집단을 말한다.

이단이란 말의 영어 표기는 ‘heresy’ 또는 ‘cult’이다. Heresy는 그리스어의 ‘하이레시스’(hairesis)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단어는 ‘선택하는 행위’ 혹은 ‘선별’을 의미하는 말이다. 하이레시스는 원래 어떤 철학사상을 주장하는 것을 뜻하는 중립적인 ‘학파’ 혹은 ‘분파’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다가 차츰 ‘승인되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다.

이단이란 또 다른 어원인 ‘cult’는 라틴어의 ‘쿨투스’(cultus)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예배’ 혹은 ‘숭배’이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적 행위는 지도자의 절대적인 숭배와 복종을 토대로 일종의 예식을 가진다. 대개 이단의 지도자는 마법사나 무당처럼 카리스마적인 사람으로서 사회의 혼란기나 사회의 규범에 불만을 갖고 튀는 사람들(일탈자)의 틈새를 이용하여 주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매료된다.⁴⁴⁾

월러스(Anthony Wallacé)에 의하면, 이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들은 개인주의적인 이단(the individualistic cult)과 사만적인 이

44) Rodney Stark, “Church and Sect,” in P. Hammond, ed., *The Sacred in a Secular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단(the shamanic cult) 그리고 공동체적인 이단(the communal cult)이다.⁴⁵⁾

개인주의적인 이단은 마술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예식행위에서 행운이나 복과 저주에 대한 것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 샤만적인 이단의 지도자는 마술적인 요소와 무당적인 요소를 함께 소유하며, 어떤 능력(power)이나 영(spirits)에 사로잡혀있는 것이 통령이라고 한다. 베버(Weber)는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경우 샤만적인 이단에서의 예식행위는 병자나 죽은 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공동체적인 이단은 흔히 유사종교(예컨대, 여호와의 증인, 물몬교, 통일교 등)에서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는데, 그들의 역할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질 만한 요소들을 갖고 있고 포교에 열정적이기 때문에 대중성을 띠고 있다고 한다. 때로, 공동체적인 이단은 한 부족 혹은 씨족 단위로 형성되기도 하고, 한 지방이나 사회의 토속종교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사회학자와 사회윤리학자 중에서 독일의 트뢴취(Ernst Troeltsch)와 베버(Max Weber), 그리고 미국의 니버(H. Richard Niebuhr)와 잉거(J. Milton Yinger) 등 몇몇의 학자들은 이단(cult 혹은 heresy), 종파(Sect)와 교회(Church)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트뢴취는 그의 저서 *기독교회의의 사회적 가르침*⁴⁶⁾에서 기독교의 역사를 세 가지 유형, 즉 종파형(sect type), 교회형(church type), 그리고 신비주의(mysticism)로 제시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극단적인 신비적 개인주의의 형태”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단은 경전

45) Anthony F. C. Wallace, *Religion: An Anthropological View* (New York: Random House, 1986), pp. 86-87.

46) Ernst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s of the Christian Churches*, translated by Olive Wyon (New York: Harper & Brothers, 1912, 1931, 1960).

이나 교리보다는 그 집단의 지도자의 영적 체험과 신비적, 기복적 가치를 강조하며, 정치적 현실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탈사회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다.

베버는 교회와 종파를 구분하고, 그 둘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각각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내적으로, 교회는 제도적이고 전통적이며 높은 가치의 예식을 갖추며 전문적 지도자의 활용이 보편적이라고 한다. 교회는 누구나 환영을 받는 곳이다. 반면에 종파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배타성이 강하기 때문에 특정인들만이 이 집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외적으로, 교회는 사회와 더불어 평화를 추구하며, 교회는 사회에 도덕적인 힘을 제공하는 반면에, 종파는 사회와 떨어져 있거나 적대적이라는 것이다.⁴⁷⁾

베버는 이단의 지도자와 카리스마(charisma)는 무관하지 않다고 제안한다. 베버에 의하면, 카리스마는 평범을 벗어난 것으로서 호소력이 있고 권위를 자발적으로 수락하며, 추종자들을 따르게 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누구든지 이런 지도자의 호소를 들으면 확신을 가지고 응답하게 된다는 것이다.⁴⁸⁾

니버가 분류하는 교회와 이단을 보면, 교회는 복음의 우주성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종교이며, 국가와 사회의 안녕 질서와 경제와 문화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는 자연 발생적인 사회그룹이라고 한다. 반면에 이단은 사회와 문화와의 결속을 부인하는 배타적이며 개인적인 소규모 집단으로서 “버림받은 소수의 자녀” (the child of an outcast minority)라고 언급한다.⁴⁹⁾

47) Max Weber,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translated by A. M. Henderson and Talcott Pars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7).

48) Weber, 위의 책.

49) H. Richard Niebuhr, *The Social Sources of Denominationalism* (New York: Henry Holt, 1929).

밀튼 잉거는 이단이란 한 지역적인 소규모 집단으로서 한 사람의 지배를 중심으로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짧은 수명⁵⁰⁾을 갖는다고 정의한다.⁵¹⁾

아무튼, 현대의 기독교에서 보는 이단은 비정통 혹은 사이비로 간주된 신조를 수호하며 과격한 지도자를 따르는, 적은 무리의 종교를 모방한 단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사회의 불안과 혼란을 틈타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며 무언가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악용하려는 시도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즉, 이단의 지도자는 의도적으로 추종자들을 속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집단의 경우가 많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단은 한 사람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급진적인 기세를 보이다가 그 지도자가 죽으면 사르르 죽어가는 현상을 보인다.

이단은 사이비 종교와도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진다. 사이비 종교는 이단으로 정죄 되지는 않지만,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잘못된 신앙상태를 가질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유사 기독교를 말한다. 즉, 기독교의 이름을 이용하여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집단을 꾸리는 것이다. 이단처럼 사이비 종교도 추종자들을 현혹시켜서 지도자의 목적(자아성취, 자기만족, 경제적인 부의 축적 등)을 이루려는 집단이다. 사이비종교가 더 악화되면 이단으로 전락될 수 있다.

50) 그래서 Lawrence Foster는 이단을 “a form of first-generation religion”이라고 한다. Lawrence Foster, “Cults in Conflict: New Religious Movements and the Mainstream Religious Tradition in America,” in *Uncivil Religion*, edited by Robert Bellah & Fredrick E. Greenspahn (New York: Crossroad, 1987), p. 188.

51) J. Milton Yinger, *Religion, Society and the Individual* (New York: Macmillan Co., 1957).

3. 종교 사회학적인 입장에서의 종교란?

사회학에서 사회를 이해하는 접근방법은 세 가지의 이론이 있다. 즉,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을 중심으로 성립된 기능주의(Functionalism)와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이론에 근거하여 형성된 갈등주의(Conflict theory) 그리고 미국의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상징적 상호작용주의(Symbolic Interactionism)가 그것이다.

위의 세 가지 이론 중에서 기능주의에 의하면, 인간이 살고있는 사회는 상호의존적인 여러 가지 조직체나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즉, 국가 기관이나 정부부처, 은행, 교회, 학교, 사업체 등의 요소들이 각각의 기능을 하지만, 동시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의지하며 관계를 갖는 와중에서 한 사회가 형성되고 유지되며, 한 사회 전체의 기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요소들은 한 사회의 구성요인이 되면서, 그 사회전체가 잘 유지되도록 상호의존적이며 상호보완적으로 관계되어진다고 본다.⁵²⁾

따라서 종교는 사회 보존과 질서 등에 크나큰 영향을 주는 공헌을 한다. 예컨대, 기독교는 한 사회에 규범과 가치관을 공급하며, 그 사회의 사람들이 올바른 삶의 길로 나아가도록 안내해 주고 힘을 심어 준다. 교회가 믿음과 도덕적 가치를 사회에 제시하고 심어줌으로써 사회의 결속과 공동체적 의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종교는 사회 안에 존재한다. 인간 사회를 배제하는 종교는 있을 수 없다. 종교는 사회인 즉 사람들의 신앙과 실천에 관계된 것이므로 당연히

52) Emile Durkheim,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translated by J. W. Swain (New York: Free Press, 1965). Max Weber, *The Sociology of Religion*, translated by E. Fischoff (Boston: Beacon Press, 1963).

사회적이다. 뒤르켐은 ‘사회를 지탱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것은 종교가 부여하는 ‘사회적 결속’이라고 말한다.⁵³⁾ 그러므로 종교와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그들은 상호의존적인 기능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가져야 한다. 한 종교가 진정 참다운 종교라면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런 종교는 사이비 종교 혹은 이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의 기능이 사회(사회 인간들에게 그리고 사회 구조)에 주는 의미와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종교의 기능성을 논함에 있어서, 그로크(Glock)와 스타크(Stark)는 다음 몇 가지의 차원을 보아야 한다고 제안한다.⁵⁴⁾

첫째는 경험적 차원이다. 진정한 종교라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체험과 느낌을 갖게 된다. 흔히 신도들은 신이나 초자연적 실존과의 소통과 교통의 체험을 갖는다. 하나님과의 교통 혹은 하나님 계시의 경험 그리고 구원에 대한 신학적 기반과 확신에 대한 것이다. 웨슬리에 있어서 경험은 각 개인의 내적인 것을 말한다. 경험은 곧 삶 속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경험이 없는 신앙이나 경험이 없는 신학은 속없는 빈 조개껍질과 같은 것이다.

둘째는 의식적인 차원으로서 종교의식의 질과 형식과 전통성을 묻는 것이다. 의식에는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 교회행사나 프로그램에의 참여, 예배에의 참여, 세례식, 장례식, 성만찬식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현

53) Durkheim,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New York: Free Press, 1965). Durkheim,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8th edition, translated by Sarah A. Solovay and John H. Mueller (Glencoe, Illinois: The Free Press, 1950)

54) Charles Y. Glock & Rodney Stark, *Religion and Society in Tension* (Chicago: Rand McNally, 1965), pp. 18-39, 68-86. Charles Y. Glock, ed., *Religion in Sociological Perspective* (Belmont, CA: Wordsworth, 1973). Glock는 처음에 4가지 종교적 차원, 즉 경험적 차원, 의식적 차원, 결과적 혹은 윤리적 차원, 그리고 지성적 차원을 제시했는데, 후에 Stark와 함께 4가지 차원 (Devotional, Faithful, Communal, Particular)을 추가했다.

금과 기부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윤리적인 차원인데, 종교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윤리적 규범과 가치관을 제공해야 한다. 고등 종교일수록 그 경전 속에는 윤리적 교훈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종교와 윤리가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종교는 인간에게 도덕적 가치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 윤리적 규범을 제시하고, 그러한 규범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움을 준다.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일상생활에 반영되는 태도를 중시하여야 한다. 종교는 신앙과 더불어 사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실천이 따를 때 진정한 종교라고 볼 수 있다.

넷째는 지성적인 차원이다. 이는 교인들이 그 종교의 교리나 신학을 얼마나 깊이 터득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웨슬리(John Wesley)는 그의 사변형의 신학(Quadrilateral,⁵⁵ 즉 성서, 이성, 전통, 경험)에서 지성적인 차원을 이성의 차원으로 보았다. 이성은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말한다. 즉 이성은 굳건한 믿음을 형성하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성서 해석의 오류나 신앙의 오류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신앙적인 차원으로서 성도들의 믿음의 척도, 즉 종교투신의 정도를 말한다. 예컨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믿음, 성서에 나타난 기적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확신, 인간의 죄성과 회개 등이다.

종교 혹은 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55) 이 용어 “Quadrilateral”은 Albert Outler가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음. 참조: W. Stephen Gunter, et al. *Wesley and the Quadrilateral: Renewing the Convers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pp. 17-38.

(1) 종교는 의미를 부여한다. 종교적 의식과 상징들을 통하여 개인들은 의미를 얻기도 하고, 또한 상호간에 의미를 교환하기도 한다. 종교는 모든 사회, 모든 인간들에게 필수적인 요소로서 인간의 삶에 의미를 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졌다. (Emile Durkheim, Max Weber, Peter Berger, Clifford Geertz)

(2) 종교는 소속감과 연대감을 준다. 종교는 사람들 상호간의 협조와 연대관계를 증진시키고, 신도들은 결속력을 얻어서 외롭지 않게 한다. 또한 사회를 함께 붙들어 매는 역할을 가진다. (Emile Durkheim)

(3) 종교는 윤리적인 규범과 가치관을 제시한다. 종교는 사회와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옳고 그름과 선악이 무엇인지의 당연성을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종교는 사회질서와 사회양심을 고취시킨다. 종교는 한 사회가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Peter Berger, Thomas Luckmann)

(4) 종교는 그 사회의 문화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 되는 힘을 제공한다. (Max Weber)

(5) 마음의 평안 (peace of mind)을 제공한다. 종교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갖는 공포와 허무, 불안과 근심, 위협과 난관 등을 극복하고 평안과 위로를 얻기 원한다. (Durkheim, Weber, Edward Sapir)

(6) 확고한 세계관(world view)을 갖게 하며, 현실을 해설하고, 그 현실의 형태를 바꾸기도 한다. (Clifford Geertz, Weber) 종교는 사람들에게 투철한 사상을 정립시키고 사회활동에 적용시킴으로써, 역사의 방향을 조정하고 사회를 개혁 혹은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동기부여를 한다.

(7) 종교는 개인과 그 공동체를 묶어 주는 역할을 한다. (Durkheim, Weber, Gerhard Lenski) 종교는 사회적 현상이다. 사회생활과 종교생활은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 신도들이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종교생활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집단형성을 촉진한다. 실로 종교는 사회에 믿음과 가치를 심어줌으로 결속력과 공동체성을 강화시킨다.

4. 이단의 발생원인

이단의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다음 몇 가지를 열거한다.

- 기성교회의 제도적인 부패와 정체성의 부재
- 기존교회의 교인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사회적, 심적인 욕구를 얻지 못할 때
-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경험할 때. 사회의 혼란이 심할수록 민중의 종교적 욕구는 강렬해진다.
- 사회의 윤리 도덕의 기반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와해될 때
-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으로 인하여 교인들이 무절제한 신앙생활을 할 때
- 교회가 분쟁하고 교단이 분열하는 와중에서
- 교인들의 신학이나 교리가 빈곤할 때. 기독교와 한국의 토속적 무속 신앙과 구별을 못하고 오히려 혼합심성을 가질 때
- 한국인에게 많은 기복심성
-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
- 말씀과 진리의 결핍증 그리고 영적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

5. 이단의 특성과 공통점

기독교를 표방하여 발생하는 이단들은 여러 가지 양상을 보인다. 성서에 나타난 표현을 보면, 요한일서 2:22에는 “적 그리스도”라는 명칭하에 그는 “거짓말하는 자”이며 “아버지와 이들을 부인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다. 그 밖에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벧후 2:1), “거짓 사도”(고후 11:13), “속이는 자”(딤후 3:13), “불법한 자”(살후 2:3),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자”(살후 2:4) 등으로 표현된다.

이단은 대개 반사회적인 요소와 파괴적인 특성을 소유하고 있다. 거의 모든 이단의 지도자들의 목적은 돈과 지배적인 힘이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이단의 성격이 형성된다. 오늘날에도 잡다한 이단들에게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⁵⁶⁾

자아 중심적

이단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세우지 않고 자기(교주) 중심적이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인양 행세하거나 혹은 예수와 동격으로 자신을 추켜세운다. 어떤 지도자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지칭한다.

비성서적

이단은 비성서적이고 비신학적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에 대한 내용을 과장 혹은 왜곡하여 위기의식을 고취시킨다. 그들은 성경의 일부

56) Ronald Enroth & Others, *A guide to Cults and New Religions* (Downers, IL: InterVarsity, 1983), 오희천 역, 「신흥종교와 이단들」(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pp. 17-23. 탁명환, 「주요 이단종파 비판」(서울: 국제종교문제연구소, 1991), pp. 15-19. 탁명환, 「기독교이단연구」(서울: 국제종교문제연구소, 1987), pp. 88-92.

분만을 강조하여 전체의 진리인 듯이 주장한다.

신격화

이단 지도자들은 자신을 신격화한다. 이단의 지도자는 신비롭고 마술적인 요소를 가진 카리스마적 지도자로서 대중에게 매력과 호소력을 제공한다. 교주의 신비적인 체험을 신의 계시로 확대하여 그를 추종하게 한다. 이단은 살아있는 지도자에게 초점을 맞춘다. 카리스마적인 이단 지도자는 하나의 우상은 될 수 있지만 초월자, 즉 하나님은 되지 못한다.

반사회적

이단은 외부 사회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폐쇄적인 경향이 있다. 즉, 반사회적이고 문화 거부적이다. 그 집단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집단을 이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단의 지도자들은 추종자들이 가족이나 친지 등의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도록 유도한다. 즉, 공간적이고 심리적인 격리를 강조한다.

비윤리적

이단의 지도자들은 비윤리적이다. 그들은 윤리적인 결점과 오류를 가지고 있다.

전체주의적

이단은 독단적이고 전체주의적이다. 교주는 독재적인 통솔을 하며, 교리와 실생활에 있어서 모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 그들의 구조는 피라미드식 구조로서 상부의 위치일수록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

밀교적

이단은 밀교적 특성을 갖는다. 즉, 이단은 비밀과 은폐의 요소가 많다. 대부분의 이단 지도자들은 밀실을 만들어 놓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자행한다.

현세적

이단은 현실도피주의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내세관이 없고 매우 현세적인 관념에 젖어 있어서 지상천국을 강조한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보다는 살아서 이 땅위에 천국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기성종교와 교회 배격

다른 종교(정통기독교)는 모두 부패한 것이라고 비난한다.

무당적 행위

한국의 무속신앙과 연계하여 혼합현상을 나타낸다. 어떤 이단들은 무당의 특유한 춤과 노래로 밤새도록 세습 무당적 행위를 한다. 이단들은 대개 인간의 호기심과 신비추구를 이용하여 입신, 방언, 안찰, 점신, 환상 등의 신비체험으로 유도한다.

신비체험

이단은 열광적 신비체험을 강조하여 신도들의 호기심과 열정적인 몰입을 유도한다. 허황된 이적을 추구하고 황홀경을 갖게 한다.

세뇌 작업과 절대충성

신도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강요하여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몰아매고 노예처럼 만든다. 강요, 감금, 강훈련을 통해서 개인의 가치관

과 세계관을 버리고, 그들 이단 집단의 모든 것을 주입시킨다. 즉 세뇌 (brainwashing)작업을 통해서 추종자들의 마음과 사고를 통솔한다.

경제적 착취

거금의 헌금은 특권과 은사와 능력을 얻는 데 절대적이라고 하여 기부금을 중용한다. 많은 헌금을 하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협박한다.

예측불허

이단 지도자의 광신적 태도가 어떤 변수를 초래할지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다.

순수성의 강요

“그들”과 “우리들”이란 공식을 만들고, “그들”은 악이고 죄인들 혹은 저주받을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순수하며 의로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즉, 사회와 세상을 불결하고 죄악된 곳으로 단정하고, 자신들의 집단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 집단의 교훈이나 규율에 절대 몰입될 것을 강요한다.

새 추종자 모집

이단은 새 추종자 모으기에 온갖 정력을 쏟는다.

이탈에 대한 공포 조장

추종자들이 그 이단 집단을 이탈할 경우에는 무서운 대가가 부과될 것이라는 공포와 불안감으로 살아간다.

6.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단은 이유를 불문하고 또한 그 여파의 다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에게 막대한 충격을 주고,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한국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32구의 시체가 용인공장의 식당천장에서 발견된 1987년도의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 1989년도 청우 일신회에서 가정주부 40여명을 집단 가출하도록 부추긴 사건, 1992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 휴거 소동, 1994년도 국제 종교연구소 탁명환 소장 피살 사건, 같은 해 영생교 승리제단의 사건(교주 조희성씨가 신도를 살해하고 암매장하도록 함), 1996년도 경기 이천 모 종교단체 신도 3명의 암매장 사건, 1997년 아가동산 사건, 1999년 수많은 여성 교도들을 농락한 JSM(정명석) 사건⁵⁷⁾, 2000년 할렐루야 기도원 사건⁵⁸⁾, 2003년 경기 연천 모 성도회 신도 4명 시신 발견 사건 등등 사례가 수없이 많다.

사이비 종교와 이단은 종교사회학적인 입장에서 이해되는 종교의 기능과 역할로부터 반 기능적이며 역행을 하는 것이 통례이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사이비 종교와 이단이 기성 교회에 끼치는 영향과 사회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요약해 본다.

(가) 이단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의 몇 가지 실례들

통일교

이 집단은 문선명씨를 메시아라고 칭하며, 강제적 사상 개조, 속칭

57) 이들은 “국제 크리스천 연합” 그리고 이후에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대학 캠퍼스를 주 활동 무대로 삼고 대학별로 동아리를 조직해 왔다.

58)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성령 수술 문제”이다.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김계화 원장의 안수기도를 받으면 불치병이 깨끗이 낫는다고 하는데, 소위 성령수술이란 김씨가 자신의 손을 환자의 환부에 대면 손에서 불이 나가서 살이 찢어져 상처가 나고, 그 자리를 통하여 암 덩어리가 녹아 나오게 하여 이를 끄집어내는 것이다.

“세뇌”(brainwashing)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사회를 이탈하게 만든다. 1982년에는 불법 세금에 관련하여 미국 정부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1955년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통일교에 관련된 5명의 교수와 4명의 학생이 파면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다.

People's Temple

지도자 짐 존스(Jim Jones)는 아프리카의 가냐(Guyana)에서 Jonestown을 세우고 종교적인 단체를 운영하다가, 1978년 11월 914명의 신도들이 집단 자살을 했다.

안장홍 증인회

1988년에 예수 재림 시한을 정하여 놓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를 시끄럽게 했다.

다미선교회

이 집단은 1992년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워서 신도들을 미혹하고 현금을 강요하며,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조성했다.

Davidians

David Koresh가 이끄는 이 집단은 미 텍사스 주의 와코(Waco)에서 집단 생활을 하다가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되었고, 1993년 FBI요원들과의 대치 중에 81명이 불에 휩싸여 죽게 되었다. 지도자 David는 130여명의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다.

Heaven's Gate

과학적 공상과 기독교의 요소를 혼합하여 만들어진 이 집단은 1997년

3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39명이 집단 자살 소동을 벌였다.

어느 종파와 이단에서는 일부다처제를 허용 혹은 묵인하고, 병역복무 거부로 국가와 긴장관계를 갖는다.

(나) 기성교회에 끼치는 영향

- 신앙의 갈등을 갖게 하여 때로는 분열을 가져온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참 진리로부터 이탈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교회 갱신이 불가피함을 역설한다.
- 이단을 추종하는 대부분의 신도들은 이중 교적을 갖는다. 예컨대, 한국 기독교의 기도원 운동 중에 도심 기도원, 즉 전국에 2000여개가 넘는 예언기도제단(가정제단이라고 부른다)을 추종하는 신도들 대부분이 형식적인 교적은 정통 기성교회에 두고 실질적인 교적은 가정제단에 둔다. 그래서 개성교회에 이질감을 조성하고 암적인 역할을 한다.
- 이단들의 제 일차 전도 표적은 기성교회 교인들이다. 이들은 계획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교인임을 알리는 교패가 부착되어 있는 교인 가정을 선택하여 포섭하기 위하여 유혹한다.
- 일반 사회에 정통 교회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

(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가정을 소홀히 여겨서 가정파괴를 가져온다. 이단의 교주들은 추종자들로 하여금 가정보다는 교주 섬기는 것을 우선 순위로 강요한다. 따라서 광신적 신도들은 가족을 버리고 가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 사회의 가치관과 에토스를 흔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위

기의식을 준다.

-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와 단절하게 하고 고립시킨다.
- 착취(인격적 착취, 경제적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항상 불안을 조성하고 죄책감을 키운다. 무지한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한다. 즉, 추종자 하나 하나를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읊아매어서 노예로 만든다. 또한 이 세상의 허무성과 종말의 임박성을 강조하며, 헌금을 하지 않으면 별로 지옥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협박도 서슴치 않는다.

7. 나가는 말

종교는 인간 사회를 보존하며, 가치를 제시하며, 정체성 확립을 한다. 인간은 종교적 존재(homo-religious)이기 때문에, 개인이든 사회이든 그 생활의 참된 생사화복이 종교와 매우 깊은 관계를 갖게 되고, 인간의 삶의 평화가 종교의 기능,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종교가 병에 걸리면, 개인이든 사회이든 건전할 수가 없다.

이단은 사회와 기독교계에 병적인 존재이다. 교회 안이나 주위에서 이단 후보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돌아나는 현실 속에서 이단은 교회를 쪼먹고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음의 몇 가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교회는 교인들을 위하여 기독교의 정통적인 교리와 신학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둘째, 올바른 성서해석 그리고 철저한 신앙훈련을 통하여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성교회가 건강하고 살아서 부흥하는 곳에서는 이단의 존재이유가 상실될 수도 있다.

셋째, 교단 본부나 신학대학교에서 목회자 연장교육을 통하여 교인들

을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목회자들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넷째, 교단 차원의 커리큘럼의 보강 등, 신학교육 정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

다섯째, 교단 차원에서 이단이란 무엇인가의 정의와 어떤 경우가 이단이 될 수 있는가 등의 범주를 정하여 교인들에게 보다 정확한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단 차원, 각 교회 차원, 그리고 각 교인 차원에서 이단의 정체성과 특성, 그리고 이단이 끼치는 사회적 악영향을 철저히 인식하고, 교육 혹은 계몽하여 이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도서

1. 오경환. 종교사회학. 서울: 서광사, 1990.
2. 정동섭. 그것이 궁극하다.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4.
3. 탁명환. 기독교이단연구. 서울: 국제종교문제연구소, 1987.
4. _____. 주요이단종파비판. 서울: 국제종교문제연구소, 1991.
5. 로날드 엔로드 외 공저. 오희천 번역. 신흥종교와 이단들.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6. Durkheim, Emil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Translated by J. W. Swain. New York: Free Press, 1965.
7. Durkheim,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8th edition. Translated by Sarah A. Solovay and John H. Mueller Glencoe, Illinois: The Free Press, 1950.
8. McGuire, Meredith. *Religion: The Social Context*.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1987.
9. Niebuhr, H. Richard. *The Social Sources of Denominationalism*. New York: Henry Holt, 1929.
10. O Toole, Roger. *Religion: Classic Sociological Approaches*. Toronto: McGraw-Hill Ryerson Limited, 1984.
11. Roberts, Keith A. *Religion in Sociological Perspective*. Homewood, Illinois, 1984.
12. Troeltsch, Ernst. *The Social Teachings of the Christian Churches*. Translated by Olive Wyon, 2 Vols. New York: Macmillan, 1931, 1960.
13. Wallace, Anthony F. C. *Religion: An Anthropological View*. New York: Random House, 1986.

14. Weber, Max. *The Sociology of Religion*. Translated by E. Fischoff. Boston: Beacon Press, 1963.
15. _____.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Translated by A. M. Henderson and Talcott Pars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7.
16. Yinger, J. Milton. *Religion, Society and the Individual*. New York: Macmillan Co., 1957.

타교파의 이단대책 사례

子外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도 없고
 人子도 들려
 가曠野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永生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世上을 이처럼
 사랑하시니
 獨生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滅亡치 않고
 永生을 얻게 하려 하심이
 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世上에 보내신 것은
 世上을 審判하려
 하심이니
 아 世上이 救援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
 는 자는 審判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유 관 지 목 사

목양교회 담임목사
 호서대 신학박사

타교파의 이단대책 문제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이단을 규정하는 데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단문제 전문가인 고 탁명환 소장은 “정통 기독교 원리의 기준인 11개 항목을 가지고 이단 여부를 분별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가 제시하는 11개 항목은 ① 성경관 ② 신관 ③ 메시아관 ④ 성령론 ⑤ 속죄관 ⑥ 구원론 ⑦ 교회관 ⑧ 종말론 ⑨ 계시의 충족성 ⑩ 복음의 배타성 ⑪ 윤리성의 문제이다.⁵⁹⁾

송실대의 김영한 교수는 정통의 기준으로 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59) 탁명환, 「기독교이단연구」(서울: 국제종교문제연구소, 1986), 42~73.

② 그리스도의 유일성 교리 ③ 삼위일체 교리 ④ 성령의 내적 증언 ⑤ 교회의 증언 ⑥ 이신득의 신앙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어긋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였다.⁶⁰⁾

조직신학자인 이종성 목사는 ① 신관 ② 그리스도관 ③ 성령관 ④ 성경관 ⑤ 교회관 ⑥ 인간관 ⑦ 종말관 일곱 가지 교리를 전적으로 믿을 때 정통, 부분적으로 믿을 때 사이비, 전체를 반대할 때 이단이라고 하였다.⁶¹⁾ 이단과 관련되어 유사종교, 신흥종교, 사이비종교, 사교, 불건전집단, 반기독교집단 등 여러 용어가 있는데 이종성 목사의 이 주장은 이와 같은 용어들의 일부에 대해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단 문제의 현장을 다루면서 문제가 되는 집단을 약간의 오류, 오류, 심각한 오류로 분류하는 인사도 있다.

2.

그러나 이단에 대한 규정은 시기와 ‘누가 문제를 제기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예제는 이단이었으나 오늘은 이단이 아닌 경우도 있고, 이 교파에서는 이단으로 규정되었으나 다른 교파에서는 이단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이용도(李龍道)목사에 대해 장로교 제22회 총회(1933)에서는 이용도를 “이단으로 간주할 수 있는 단체”로 단정했으나(감리교는 1933년에 휴직처분을 하였다.) 최근에는 이용도를 이단이라고 하는 일이 거의 없으며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실정이다. 용문산 운동의 나운몽(羅雲夢) 장로에 대해 예

60) 김영한, “사이비 이단과 정통의 표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편, 「한국기독교와 사이비 이단운동」(서울: 숭실대학교출판사, 1995), 20~29.

61) 이종성, “정통, 사이비, 이단,” 한국기독교학술원 강연 중에서 1993. 3. 16.

장 제41회 총회(1956년)에서 “변태성 신앙운동자”로 규정하고 1976년 다시 맹렬하게 비판할 때 감리교는 “우리 교파 장로”라며 옹호하였다. 대표적인 이단으로 꼽히고 있는 통일교에 대해 고 서남동 교수(기장 목사)는 “통일교의 「원리강론」은 지금까지의 한국신학계가 산출한 신학서 중에서 그 양에서나 조직력에서나 그 상상력과 독창성에서 최고의 것” “(통일교는) 방금 세계 교회의 갱신 기풍과 ‘새로움’에 대한 요망을 앞지르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⁶²⁾ 예장 통합측 제68회 총회(1983년)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사이비”로 규정하였으나 연합 활동은 계속 유지하였다. 장로교 통합측에서 발행한 이단 관련 서적의 “최근 한국기독교교회 이단종파현황” 일람표에 대한수도원을 넣고 감리교 정회원 교역자인 최조영 목사(작고)를 “교주”로 소개한 사례도 있다. 최조영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이유는 직통계시이다.⁶³⁾ 장로교 합동측과, 통합측 81회 총회(1996)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도총회(다락방)을 합동측이 영입하는 문제가 한동안 거론된 일도 있었다.⁶⁴⁾

이와 같은 문제들을 종합하면 이단 문제는 가변적이고 상황적이며 귀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관계성도 이단 규정 여부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관계성을 교계에서는 “괘씸죄”라고 말하기도 한다.

장신대 한승홍 교수의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생활하며 적용할 때 적용의 범위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다.”라는 말은 이단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62) “통일교회 원리강론의 비판적 연구,” 「현대와 신학」, 제6집(서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1970), 144, 181.

63) 정행업,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이단논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71.

64) 「크리스천신문」 2004. 5. 17. 1면.

3.

이단에 대한 규정은 일부의 경우 연합기관에서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1955년 7월 한국기독교연합회가 전도관을 사이비운동, 기독교와 관계없는 집단이라고 규정한 일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교계의 여론”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대부분 각 교파의 공회의에서 이뤄졌다.

먼저 각 교파에서 자기 교파에 소속된 교역자 문제를 다룬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기성 총회에서 밤빌리아 추수꾼(허영만 목사)를, 침례교 총회에서 김기동 목사를, 예성 총회에서 이재록 목사를 제명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다른 교파에 소속된 인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일도 있는데 성결교 제11회 총회(1956년)에서 나운몽을 이단으로 규정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일에 “초기로부터 지금까지 이단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잘 해결해 왔으며 비교적 선견지명을 가지고 대처해” 온 교파는 예장 통합측이다.

예장 통합측은 통일교대책위원회, 문선명 집단 대책위원회, 조용기, 권신찬 이단 사이비연구대책위원회, 귀신론연구위원회 등 비상설기구를 운영하고 이단, 사이비 시비에 대한 지침서를 발표하는 등(제69회 총회, 1984) 이단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오다가 75회 총회(1990년)에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사이비 신앙운동 및 기독교이단대책위원회 포함)를 발족시켰고 실무기관으로 사이비이단문제상담소를 두어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반기독교서적 문제 등도 다루고 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문제 제기→총회상정→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연구결과 총회상정→공포의 순서를 밟는데 이 교파에서 발간하는 「사이비 이단 연구보고서」는 교계에서는 물론 사회에서도 이단 문제를 다룰 때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대양 사건 등 구원파와 관련된 문제가 대두될 때 매스컴은 “구원파는 예장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이 기구에서 이단 문제에 내린 결정들을 소개하면,

밤발리아 추수꾼: 이단(75회 총회)

박윤식 씨(대성교회): 이단성이 명백히 밝혀짐

박명호 씨(엘리아복음선교회): 명백히 이단으로 판정됨

이장림 씨(다미선교회): 이단성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초석 씨(한국예루살렘교회): 이단임(이상 76회 총회)

김기동 씨(귀신론): 무서운 이단이다

이명범 씨(레마선교회): 극단적인 신비주의 형태의 이단

권신찬, 이요한, 박옥수 씨(구원파): 명백한 이단으로 사료된다

윌트니스 리(지방교회, 회복교회): 명백한 이단이다(이상 77회 총회)

김한식 씨(한사랑선교회): 진로가 불투명하므로 이 단체를 후원하거나 활동에 협력하는 것은 중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김계화 씨(할렐루야기도원): 비성경적, 비기독교적인 많은 위험성을 자행하고 있으므로 참석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해야 한다

황판금 씨(대북기도원): 사이비 집단

이옥희 씨(태백기도원): 비성경적으로 참석을 엄격히 금해야 한다(이상 78회 총회)

이옥한 씨(감람산기도원): 관심 있게 살펴보고 출입교인들을 적절히 지도해야 한다(79회 총회)

안식교(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비성경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

이만희 씨(신천지교회, 무료성경신학원): 이단이다

트레스 디아스: 신학적, 교육학적, 현상학적 연구 필요. 이단이나 불건전한 단체(교회)에서 운영하는 트레스 디아스에 참여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80회 총회)

빈야드 교리: 바람직하지 않다.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류광수씨의 디락방 전도운동: 사이비성이 있다(81회 총회)

이 기구는 이단을 너무 양산하며 독선적이라는 지적과 교파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침례교의 윤석전 목사 문제이다.

이 기구의 활동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2004년에 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연합회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라는 기구에서 「정통과 이단 종합연구서」라는 책자를 발행하였는데 이 책자는 통합측의 사이비이단문제상담소가 이단, 또는 사이비로 규정한 단체들에 대해 “본 위원회는 이 단체의 자료들과 근거 증거들을 조사해 본 결과 이단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단이 아니다”식으로 규정해서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

4.

이와 같은 일들을 종합하면 감리교회는 이단 문제를 감리교회의 입장에서 보며 검토해야 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일들을 살피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건의하고 싶다.

첫째, 총회 안에 이단 문제를 다루는 상설 기구를 설치하여 경험과 자료를 축적하도록 하는 일이다. 이단연구소 같은 부설기구를 보유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감리교회가 다룬 이단 문제를 수록한 자료집을 발간하는 일이다.

장로교 합동측은 총회가 공식 발간한 「기독교의 이단들」(1997)이 있고 통합측 역시 총회 공식 발행의 성격이 있는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이단 논쟁」(한국장로교출판사, 1999년)이 있다.

이단에 대한 감리교회의 대처를 보면 의외로 소극적이고 어느 면에서는 무대책이었으며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처해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책자 발간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이단 문제에 대해 권위 있고 심도 있는 대처가 이뤄지기를 바라게 된다.

감리교회의 입장에서 본

이단문제



발행일

2006년 4월 25일

발행인

신 경 하

발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100-101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4-8감리회관 16층

TEL. (02)399-4300 FAX. (02)399-4307